

2부

세션3

라틴아메리카 정치와 경제

[좌 장]

- 김기현(선문대)

[발 표]

- 김유경(한국외대), "페루 대통령제의 특성과 한계: 비스카라 정부의 탄핵 국면을 중심으로"
- 손혜현(국립외교원) "중국의 아르헨티나 우주기지 구축과 지정학적 함의"
- 노태구(서울대 대학원) "어제의 적 혹은 오늘의 동지?: 반란단체 합법화를 통한 국가건설"
- 이상현(전북대) "라틴아메리카 사회정책과 기본소득"

[토 론]

- 임수진(대구가톨릭대), 차경미(부산외대), 이순주(울산대), 곽재성(경희대)

페루 대통령제의 특성과 한계 : 비스카라 정부의 탄핵 국면을 중심으로

김유경(한국외대)

서론

- ▶ 2020년 11월 9일 페루 의회는 비스카라 대통령의 “도덕적 부적합(moral unfitness)”을 이유로 한 탄핵안을 통과시킴
- ▶ 비스카라 전 대통령은 2018년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당시 대통령이 브라질 건설사 관련 비리에 연루돼 물러난 후 부통령으로서 대통령 잔여 임기를 승계
- ▶ 비스카라는 취임 후 강력한 반부패 개혁에 나섰지만, 부패 척결 대상으로 지목된 의회와 충돌했고 결국 탄핵안이 가결되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남
- ▶ 이후 국회의장인 모레노가 임시대통령으로 취임했으나 이를 ‘의회쿠데타’로 규정한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에 11월 15일 사임의사를 밝혔고, 의회는 탄핵에 반대한 중도성향의 사가스티를 국회의장으로 선출, 임시대통령으로 나머지 8개월의 임기를 승계
- ▶ 페루의 비스카라 대통령 탄핵 국면은 그동안 소위 ‘제왕적 대통령’, 강력한 대통령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며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던 중남미 정부형태 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

- ▶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관계 특히 의회 내 소수당의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과 교착상태가 ‘정치의 사법화’로 해소되는 경향이 갖는 문제
- ▶ 선거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의 대표성과 정당성이 국민의 정치적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훼손될 수 있는가의 문제
- ▶ 대통령 탄핵이 의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정해진 임기 동안의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장점으로 하는 대통령제가 페루의 상황에서 유효한가
- ▶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남미 국가들 대통령제의 하위 유형들과 이들이 갖는 장점과 제도적, 실질적 한계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
- ▶ 이 연구는 페루 비스카라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제기되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페루 대통령제의 유형 및 특성과 한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답하고자 함

대통령제의 하위 유형들

- ▶ 정부형태는 국가의 정치적 질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치제도이며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이다. 정부형태는 권력이 현실에서 어떻게 행사되는지와 선출된 대표자들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에 대한 방식을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정부형태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보다 적합한가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 ▶ 정부형태의 대표적 유형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이다. 순수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절충형 또는 변형된 형태도 상당히 나타난다.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엄격한 권력분립을 기반으로 대통령의 임기 동안 정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강력한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치불안정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국가들에 의해 채택되어져 왔다.
- ▶ 그러나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의회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 독재의 가능성이 높으며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할 때 제도적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특히 의회 내 소수당이 여당일 경우 대통령과 의회의 교착상태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 ▶ 중남미 국가들은 엄격한 권력분립과 정치적 안정이 우선되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중남미 국가들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의회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러한 특성은 ‘제왕적 대통령’·‘나아가 ‘위임민주주의’ 등으로 표현되며 민주주의의 질적 성숙에 강력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대통령제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 ▶ 메인워링(Mainwaring 1993:214-222)은 대통령제와 다당체계가 결합하였을 때 양당체계의 경우보다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의회 내 소수당이 될 가능성이 커서 주요 사안마다 대통령은 의회 내 다수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정당 간 경쟁에 있어서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며, 정당연합이 구성된다 하여도 내각제의 경우보다 안정성이 낮아서 행정부와 의회 간의 교착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 25년 이상 대통령제가 지속되었던 7개의 사례 중 미국,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콜롬비아, 필리핀의 유효정당 수는 3개 미만이었고 오직 1932-1973년 기간의 칠레만이 다당제 국가(Mainwaring and Shugart 1997:466-467).
- ▶ 대통령제에 비해 의원내각제가 민주주의의 질적 성숙을 위해 보다 바람직한 정치형태라 주장하는 린즈(Linz 1994)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례로 대통령제와 다당제가 결합된 남미국가들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 ▶ 반면, Akarçay(2020)는 중남미 국가들이 다양한 유형의 대통령제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통령의 역할 변화, 선거 제도 개혁의 영향, 유권자 확산 권력의 개입을 통한 대통령 퇴출 허용, 대통령의 입법권 및 임기 제한의 유연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기제들이 오히려 민주주의에 필요한 다원성을 제한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중남미 국가들의 정부형태

의회제	수상-대통령제	대통령-의회제	대통령제
벨리스	아이티	페루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도미니카 공화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 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Sedelius & Linde 2018, 154-155를 수정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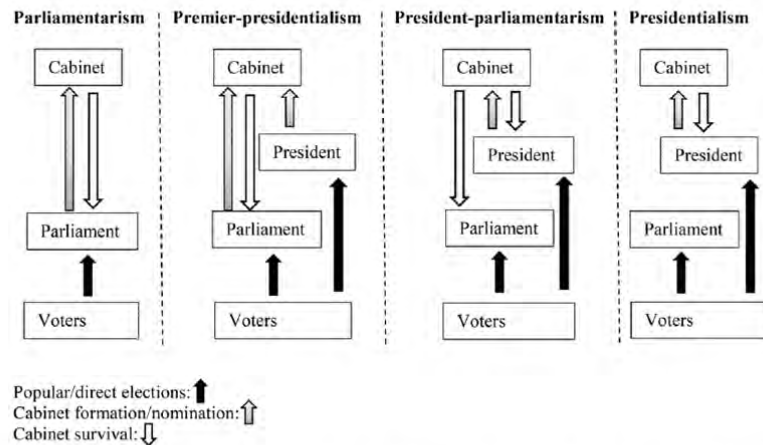


Figure 1. Popular elections and cabinet survival under different regime types. Source: Åberg and Sedelius.³¹

Sedelius & Linde 2018, 139

페루 비스카라 대통령 탄핵 국면

- ▶ 2018년 3월 21일-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Pedro Pablo Kuczynski) 사임과 비스카라 부통령의 대통령직 승계
 - ▶ 의회가 자신의 '도덕적 무능력'에 대한 탄핵 표결을 하기 전 쿠친스키 대통령 사임. 이후 비스카라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
 - ▶ 페루의 헌법 전문가 알론소 구르멘디에 따르면 '도덕적 무능력'이라는 문구는 2000년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이 사임 후 망명한 후 "일생에 한 번 뿐인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사용되도록 의도되었지만, "2016년부터 감독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이 의회에서 사용되고 남용될 수 있는 선례가 되었다." 이 과정은 공식적인 탄핵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며 종결될 수 있었음
- ▶ 2019년 9월 30일-비스카라 대통령의 의회 해산
 - ▶ Salvador del Solar 총리는 9월 30일 오전 헌법재판관 선출 관련 국회에 개정을 제안하며 동시에 내각신임을 투표에 부칠 것을 요청 - 헌법재판관 선출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상징적, 법적 지위의 중요성으로 인해 대통령은 이를 국가중요사안으로 정하고 국회에 관련 절차 및 법 개정을 요청함
 - ▶ 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총리의 국회 입장을 거부한 가운데 신임안 표결이 지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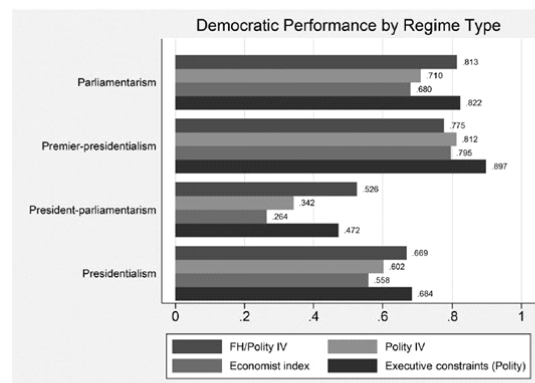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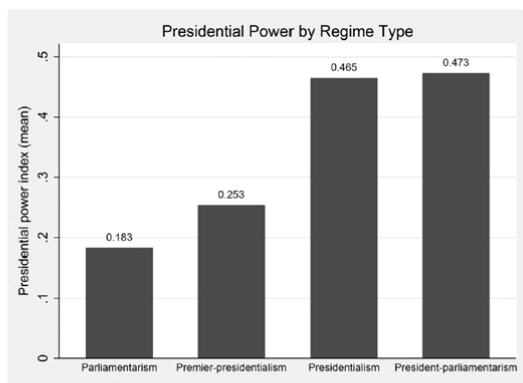
- ▶ 의회는 2017년 9월 전 쿠친스키 대통령 집권 당시 Fernando Zavala 총리의 내각신임안을 이미 부결한 바 있어 현재 Del Solar 총리 내각을 불신임할 경우 대통령의 의회해산이 적법해지는 상황이었음(2차례 내각불신임에 이은 의회 해산)
- ▶ 의회는 Mercedes Araoz 부통령을 대통령 대행으로 임명해 Araoz 부통령은 국회의장 앞에서 권한대행 선서를 했으나 10월 1일 국내 여론이 의회 비난으로 악화되자 사임 발표
- ▶ 페루 국회는 금 11.9(월) 마르틴 비스카라(Martin Vizcarra) 대통령의 도덕적인 결격성을 사유로 발의한 대통령 탄핵안을 최종 가결하였습니다. (총 의석 130석 중 찬성 105, 반대 19, 기권 4, 불참 2)
- ▶ 헌법상 총 의석수의 2/3 초과(87석 이상) 찬성시 대통령 탄핵안 가결
- ▶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라 마누엘 메리노(Manuel Merino) 국회의장이 11.10(화)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
- ▶ 헌법 115조에 따르면, 탄핵안 가결시 제1부통령, 제2부통령, 국회의장 순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하며, 임시 대통령은 즉각 선거를 소집. 현재 페루는 부통령이 부재하여 국회의장이 대통령직을 승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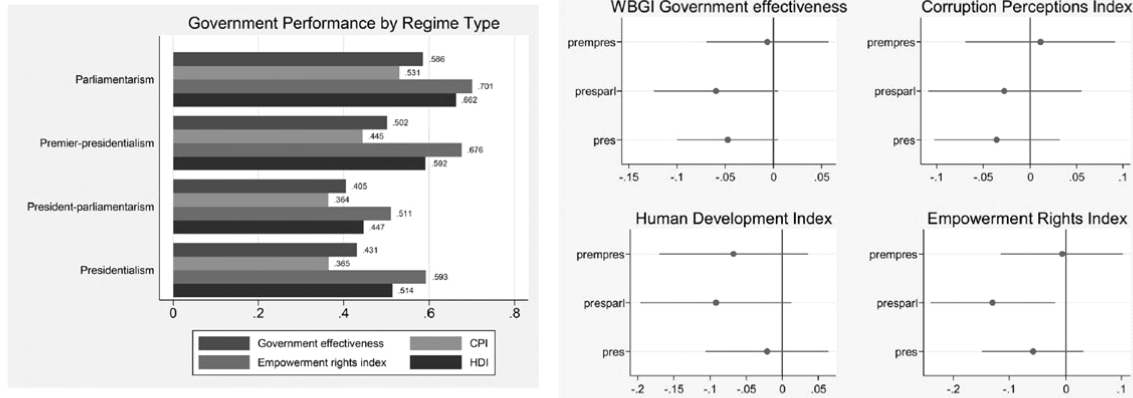
- ▶ 비스카라 대통령의 의회 탄핵에 대한 반발로 대규모 시위 발생, 전국적으로 확산
- ▶ 시위 도중 사망자 발생, 메리노 사임 요구 증가
- ▶ 11.14(토) 밤부터 일반시민은 물론 정치계와 언론 등도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기 시작함. 11.12(목) 취임한 신임 장관 12명은 11.14 밤 늦게 긴급 사퇴 입장을 밝혔으며, 11.15(일) 아침부터 전국적 항의 시위가 재개됨
- ▶ 11.15(일) 메리노 대통령 사임 발표
- ▶ 11.16(월) 의회는 프란시스코 사가스티(Francisco Sagasti)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
- ▶ 11.17(화) 사가스티 국회의장은 대통령 취임
- ▶ 헌법(115조)에 따라 현재 공석 상태인 대통령직을 이전 정부의 잔여 임기(2021.7월)까지 승계

- ▶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국회의 비스카라 전 대통령 탄핵 시도 당시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11.19(목) 최종 기각 판결
 - ▶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사유로 국회가 헌법상의 '영구적인 도덕적 불능' 조항을 적용하여 탄핵한 것은 탄핵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표결에 불임
 - ▶ 7명의 재판관 중 4명이 비스카라 前 대통령이 탄핵된 후 신정부가 출범하였으므로 권한쟁의 청구를 인정하여 탄핵요건 부합 여부를 판결할 실체가 소멸(sustraccion de materia) 했다는 입장을 견지한 결과, 최종 기각됨.
 - ▶ 또한, 탄핵의 사유가 된 대통령의 영구적 도덕능력 결여의 적용범위 명확화 및 대통령 탄핵 가결 기준 강화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발표하지 않음



페루의 대통령제





- ▶ 대통령과 의회가 국민에 의해 선출, 의회는 내각(행정부)에 대한 신임권을 갖고 있으며 직무제한을 결정할 수 있다. 반면 대통령은 의회가 두 차례의 내각 불신임 또는 직무제한을 결정할 시 의회 해산권을 갖는다.(134조)
- ▶ 의회는 대통령 탄핵권을 가지며 탄핵안 가결 시 제1부통령, 제2부통령, 국회의장 순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하며, 임시 대통령은 즉각 선거를 소집한다.(115조)
- ➔ 합법적인 대표성을 갖는 대통령과 의회에게 서로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부-입법부 간의 권력관계에 균형을 부여할 수 있지만 대통령과 의회가 정치적 갈등 상태이거나 교착상태일 때 서로의 발목을 잡음으로써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어렵게 한다.
- ➔ 대통령 탄핵 가결 시 부통령의 역할,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의회 내 정당들의 의석 배분과 정치적 성향의 영향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정당시스템의 제도화 수준이 낮은 페루의 경우 정치적 거래와 부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 페루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의회제의 특징을 보이며 대통령의 권한이 다른 대통령제 하위 유형에 비해 강하지만 정부의 정책 수행 및 민주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
- ▶ 부패인지수 및 인간개발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페루의 경우 대통령-의회제라는 정부형태의 특성에 영향을 받기 보다 정부형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 ▶ 대통령-의회의 갈등이 정치적 쟁점으로 심화되었을 때 사법적 해결에 의존하는 정치의 사법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 ▶ Akarçay, Ebru Ilter. 2020. "Unraveling Presidentialism: Learning from the Latin American Experience", *Alternative Politics* 12(1), 204-227.
- ▶ Carreras, Miguel. 2012. "The Evolution of the Study of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 in Latin America: Or How Theory Slowly Catches Up with Reality", *Revista Ibero-Americana de Estudios Legislativos* 2, 20-26.
- ▶ Cheibub, Jose Antonio. et al. 2011. "Latin American Presidentialism in Comparative and Historical Perspective", Public Law and Legal Theory Working Papers 361. The University of Chicago.
- ▶ Doyle, David. 2020. "Breakdown, Cooperation, or Backsliding? A Return to Presidents and Legislatures in Latin America",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55(1), 168-175.
- ▶ Llanos, Mariana and Detlef Nolte. 2016. "The Many Faces of Latin American Presidentialism", *GIGA Focus* 1, 1-11.
- ▶ Lijphart, Arend. 2004. "Constitutional Design for Divided Societies." *Journal of Democracy* 15(2), 96-109.
- ▶ Linz, Juan J. 1990. "The Perils of Presidentialism." *Journal of Democracy* 1(1), 51-69.
- ▶ Linz, Juan J. 1994. "Presidential or Parliamentary Democracy: Does it Make a Difference?" In *The Failure of Presidential Democracy*, edited by Juan J. Linz and Arturo Valenzuela, 3-87.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 Mainwaring, Scott. 1993. "Presidentialism, Multipartism, and Democracy: The Difficult Combinati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6(2), 198-222.
- ▶ Mainwaring, Scott, and Matthew Shugart, eds. 1997. *Presidentialism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 Pérez-Liñán, Aníbal. 2007. *Presidential Impeachment and the New Political Instability in Latin Ame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 Sedelius, Thomas and Jonas Linde. 2017. "Unravelling semi-presidentialism: democracy and government performance in four distinct regime types", *Democratization* 25(1), 136-157.

2020.10.16.

중국의 아르헨티나 우주기지 구축과 지정학적 함의

국립외교원 손혜현

중국-중남미 관계

- 중국의 중남미 진출은 단순히 경제적·상업적 영역을 넘어 점점 더 넓고 다양한 공간을 포함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정치, 사회, 문화, 학문(과학), 환경 분야에서의 중국의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함.
- 기존 연구의 다수가 대중남미 무역과 투자에 대한 중국의 의도와 영향에 초점이 쏠리면서 경제 조치 및 제안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중국의 정치 및 전략적 조치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음.
- 미-중 패권경쟁이 가열될수록 중국은 라틴아메리카와의 동맹관계를 중시하고(대중남미 외교백서 출간, 일대일로에 중남미 포함, 중국의 우주 개발체제), 대중남미 정책을 중국의 세계전략의 틀 안에서 추진하면서, 아르헨티나가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의 새로운 교두보로 부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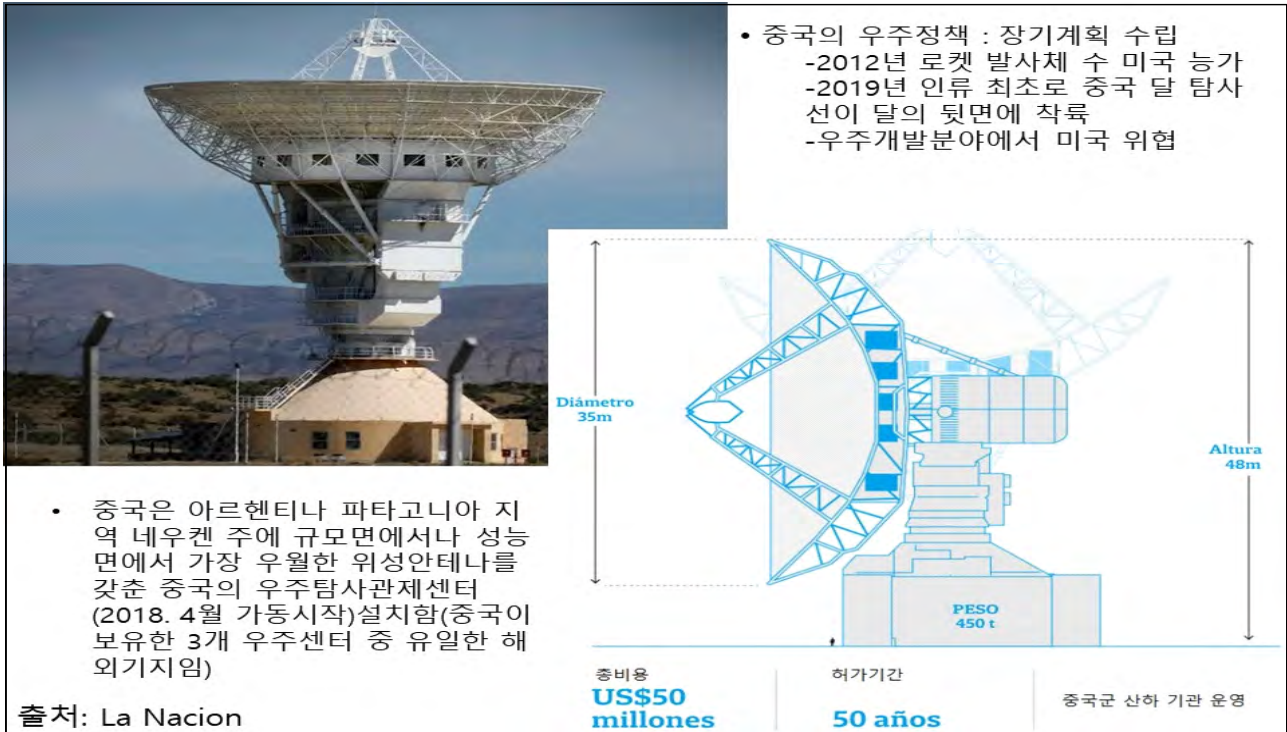
- 관세전쟁으로 촉발된 미-중간 무역전쟁의 본질은 “중국 제조 2025”로 대표되는 중국의 첨단기술 추격을 좌절 시키는데 있음.



- 중국의 남극활동 강화
 - 네 개의 기지 보유
 - 미래자원 선점
 - 과학강국 과시



출처 : 신화사



아르헨티나-중국 우주협력

- 중-아 우주협력 협정의 주요 내용
 - 네우켄(Neuquén)주 바하다 델 아그리오(Bajada del Agrio) 마을의 200Ha 부지를 50년간 면세로 양도하며, 센터의 운영권은 중국군에게 있고, 아르헨티나우주국(CONAE)은 하루 1시간 40분 안테나 사용이 가능함.
 - 아르헨티나정부는 센터운영 및 관리감독에 개입 안함.
- 경과
 - 2010년 중국위성발사추적 통제국(CLTIC)의 우주협력 제안
 - 2012년 중국 우주비행국 산하 CTLC와 아르헨티나의 국가항공우주기관(CONAE)간 협력협정 체결
 - 2014년 아르헨티나와 중국이 협정에 서명
 - 2015년 아르헨티나 의회 승인
 - 이 조치는 2015년 2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체결과 원전, 금융, 우주항공 등 15건 이상의 협정 체결 직후에 이루어짐.
 - 2016년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 중국우주센터의 평화적 사용을 명시함
 - 2018년 4월, 우주센터 가동 시작
 - 2019년 1월, 중국의 달의 뒷면 조사 및 Chang-E 4 프로젝트에서 네우켄우주센터 주요 역할 수행.
 - 2020년 7월, 중국의 화성탐사프로젝트에 CONAE 참여
 - 2020년 8월, 아르헨티나 페르난데스정부 중국우주센터 관련법 공포



- 2019년 중국 창E 4호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 성공, 이 과정에서 파타고니아 우주센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우주인 지구와 통신).

- 2020년 7월 23일 중국 사상 최초로 화성 탐사선 텐원1호 발사, 이 과정에 아르헨티나 항공우주기관(CONAE)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함.

중국의 파타고니아 우주센터 구축의 목적과 의도

➤ 목적

- (중국 측) 달과 화성 탐사, 순수한 과학적 목적
- 지정학적 경제적 목적(중남미에서 일대일로 촉진, 정치경제적 연대강화, 우주시스템과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의존 심화)

중국의 파타고니아 우주센터 구축의 목적과 의도

➤ 의도

① 왜 중남미에 설치했는가?

- 미국의 세력권인 중남미에서 미국에 위협이 될 만큼 성장한 중국의 과학기술력을 미국 및 세계에 과시하려는 의도
- 중남미에서 미국과 중국이 동등한 경쟁자임을 과시하려는 의도
- BRI(일대일로)*를 통해 개도국에서 상업적 우주 산업에서 지배적 지위 수립

* 일대일로는 중국의 세계개발 전략으로 인프라투자를 확대하여 중남미를 중국경제에 긴밀하게 연결하고 중국의 세계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

- 중국의 대중남미 외교의 목표
 - 미국의 뒷마당 흔들기 : 미국의 지역패권 위협
 - 국제사회 지지세력 확보
 - One China 정책 : 타이완 압박
 -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이익 추구
-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의 분기점
- ① 2008년 : 남중국해 영유권 선언하고 미국과 갈등 시작
 - ② 2016년 : 미국의 신형대국관계 거부
 - ③ 2018년 : 미·중 무역갈등
 - ④ 코로나 19 : 중국 책임론 회피, 중남미 코로나 및 경제 위기 심각
- ↓
- 미·중간 전략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중국의 외교전략에서 중남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짐.
- ① 중국의 첫번째 대중남미 정책 문건 발표
 - ② 중국의 두번째 대중남미 정책 문건 발표
 - ③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중남미를 공식적으로 포함
 - ④ 중국의 공세적인 마스크외교

- ② 왜 아르헨티나, 특히 파타고니아의 심장부인 네우켄 주에 설치했는가?
- 지리적 이점
 - 남반구에 위치
 - 도시와 멀리 떨어진 고립된 지역으로 반경 100km내 주파수에 영향을 미칠 장애물 부재.
 - 최대 세일에너지 매장지인 바카무에르타(Vaca Muerta)유전지대 근접
 - 미국과 원거리에 위치
 - 아르헨티나의 심각한 경제위기로 중국의 협상력 극대화 가능
 - 아르헨티나의 BRI의 참여 촉진
 - 아르헨티나의 기술력 수준 : 2012년 유럽우주국(EAS) 멘도사주에 우주센터 설치, 우주항공기술 분야 경험과 기술 축적.

국내외적 의혹 및 논쟁

①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 가능성 제기

- 중국군 산하 위성발사추적통제국이 운영하고, 대부분의 인력이 군 소속임.
- 아르헨티나의 감독을 받지 않으며, 데이터수집에 대한 비밀 유지 (불투명한 운영)
-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위성에 개입하여 통신을 스캔하여 위성, 미사일, 드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발사를 통제할 수도 있음.

② 비밀협상

-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를 이용하여 경제적 지원 대가로 긴밀하게 추진
- 2015년 중국 8억 달러의 스왑, 산타크루주 Cepernic댐 건설, 신규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아르헨티나 정부에 제공
- 2020년 185억 달러의 스왑 갱신 직후 아르헨티나 정부 중국우주센터 협정을 비준함

중남미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 아르헨티나의 안보위기 및 중남미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가능성

- 미·중 경쟁하에서 미래 전략산업 중 하나인 우주산업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아르헨티나와의 우주협력 강화는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과 우주능력을 강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미국을 자극하게 됨.
- 남미에서의 중국의 정보수집 능력 증강은 미국의 중남미에 대한 정치, 경제, 전략적 영향력에 도전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아르헨티나를 미·중 전략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 미·중의 군사적 대결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Civic Coalition당의 Elisa Carrió 하원의원)
- 2018년 6월 미국은 네우켄 주에 미국방부의 남부사령부가 자금(130만 달러)을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 및 자연재해 대응 센터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는 미국의 중국활동 모니터링 의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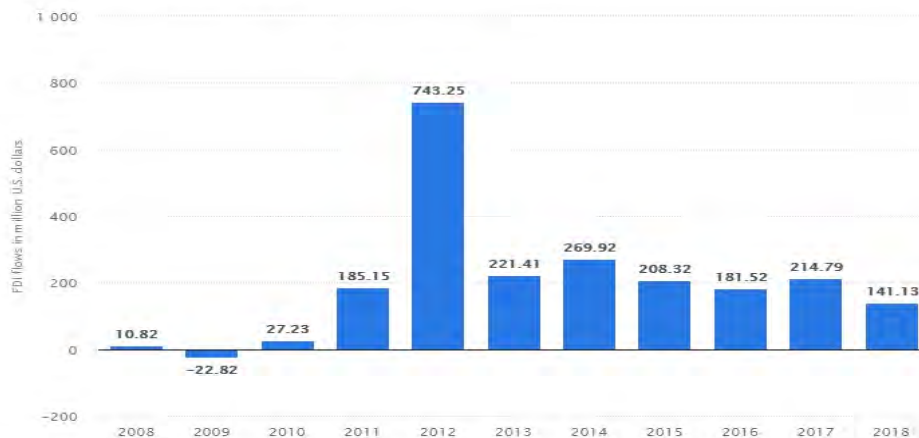
- 중국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경제(금융)적 자율성 상실 우려 증가
- 민감한 군사안보적 결정과 경제 협정의 교환(2015년 우주협력협정 체결과 2020년 동협정 비준이 중국과의 경제협정 체결 전후로 이루어짐)
 - 미국은 “부채 외교의 함정”에 대해 경고함

아르헨티나의 대미 및 대중 무역비중 변화(2001~2018)

년도	미국		중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01	10.90	18.61	4.22	5.25
2002	11.50	20.7	4.25	3.67
2003	10.47	16.35	8.28	5.20
2004	10.72	15.28	7.61	6.24
2005	11.40	15.80	7.86	5.33
2006	8.85	12.57	7.47	9.14
2007	7.79	11.95	9.26	11.39
2008	7.71	12.15	9.08	12.36
2009	6.61	13.33	6.59	12.43
2010	5.38	10.79	8.51	13.47
2011	5.18	10.56	7.27	14.30
2012	5.03	12.47	6.34	14.57
2013	5.51	10.84	7.26	15.20
2014	5.97	13.85	6.52	16.39
2015	6.05	13.18	9.11	19.65
2016	7.76	12.49	7.66	18.73
2017	7.74	11.41	7.41	18.41
2018	6.95	<u>11.76</u>	6.84	<u>18.45</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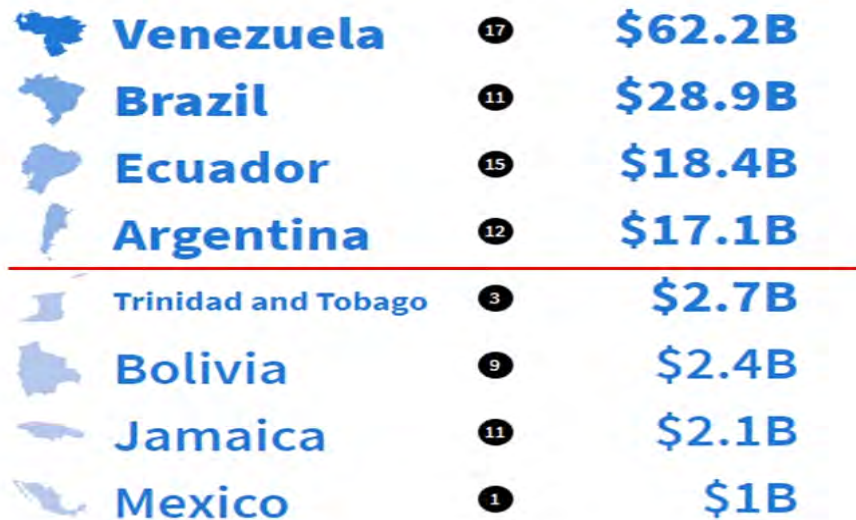
출처: <https://wits.worldbank.org/>

Annual FDI flows from China to Argentina 2008-2018



출처: Statista

중국의 대중남미 대출규모 현황(~2019)



중국의 대아르헨티나 대출 유형 및 목적(~2019)





어제의 적 혹은 오늘의 동지?: 반란단체 합법화를 통한 국가 건설

Old Foes or New Friends?

State-Building through the Legitimization of Insurgents

12/12/20

Roh Taegoo
(Political Science, SNU)

Contents

- I. Research Question**
- II. Developing the Theory**
- III. The Logic : Two-Staged Games**
- IV.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 Six Cases**
- V. Conclusion and Beyond**

I. Research Question

“Can the political bargain between incumbent and insurgency to legitimize the latter necessarily promote state-building?”

- **European State Formation**

- a) Weberian State(1919) : the monopoly of physical force
- b) C. Tilly(1990)’s bellicist thesis : state extraction
- c) M. Mann(1982)’s infrastructural power

- **Latin American State-building as an Incomplete Project**

- *States-within-states* (Lemke 2003), *Quasi-states* (Jackson 1987; Kingston & Spears 2004)

-1-

I. Research Question

- **Framework of Political Development (Fukuyama 2011; 2015)**

- Political Development = State Capacity + Accountability + Rule of Law
- Sequence being another *x variable*
- ex. France (RoL → State), England (RoL → Acc.), China (State → RoL)

- **Latin America’s *Accountability Trap***

- Partisan incumbent that has risen from democratic elections exercises discretionary influence upon state apparatus and legislature, like *roving bandits*.

-2-

II. Developing the Theory

▪ A Few Key Assumptions

1. Relief in the int'l pressure creates the dominance of domestic politics
2. Falling insurgent power presents negotiation as its dominant strategy
3. Law being the product of fiction, the legitimization of insurgents hinges upon a choice
4. Illegitimate status of insurgents gives the incumbent an asymmetrical bargaining leverage

-3-

II. Developing the Theory

▪ Two Modes to End the Civil Conflict

- Civil conflicts either end up in a *winner-takes-all* manner where either one entity survives or in a *positive-sum* manner where both reach a mutual accord
- 80% of conflict resolutions between 1940-90 led to the former, only 20% to the latter (Walter 1997)

Hypothesis A. When the civil conflict resolves in a positive-sum manner, there is a higher likelihood for the regime to strengthen its state capacity.

-4-

III. The Logic : Two- Staged Game

- **From Civil Conflict to Peace Regime**

- Sub-optimal equilibrium to optimal equilibrium
- The former is self-enforcing, therefore, creating a status-quo bias
-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as opposed to *punctuated equilibria* (Mahoney&Thelen 2010)

- **Two stages is a theoretical must**

- 1st stage (bilateral bargain) → 2nd stage (multilateral implementation)
 - Incumbent capacity is not endogenous to insurgent capacity
- cf. Johan Galtung(1969)'s positive and negative peace

-5-

III-1. 1st Stage Simultaneous Game

- **Choosing *revision* over *status-quo***

- Net benefit of *revision* bigger than that of *status-quo*

$$(IB + DB - EC - DC) - (0 - SC) > 0$$

- Short-term electoral interest drives discount rate, which raises democratic w_1
- *Exchange Cost* bears generational and sectorial shifting

$$w_1(DB - DC) + w_2(IB - EC + SC) > 0$$

Hypothesis B. The more disadvantaged its upcoming electoral survival prospects are, the more probable is the incumbent to strike peace accords.

-6-

III-2. 2nd Stage Sequential Game

▪ Peace Accords as Legal Focal Point

- Political approximation between E_{sq} and E_{rev} required
- Variables in due process :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Hypothesis C. Transitional justice, land reforms and FDIs are some of the channels through which the state's infrastructural power is reinforced as an unintended consequence of accords implementation.

-7-

II-1. 2nd Stage Sequential Game

▪ Channels of institutionalization

1. Transitional Justice : Truth Committees, Special Courts
2. Land reforms :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transport, elections, schools)
3. Foreign Direct Investment : country discount and judicial independence

Hypothesis C. Transitional justice, land reforms and FDIs are some of the channels through which the state's infrastructural power is reinforced as an unintended consequence of accords implementation.

-8-

III.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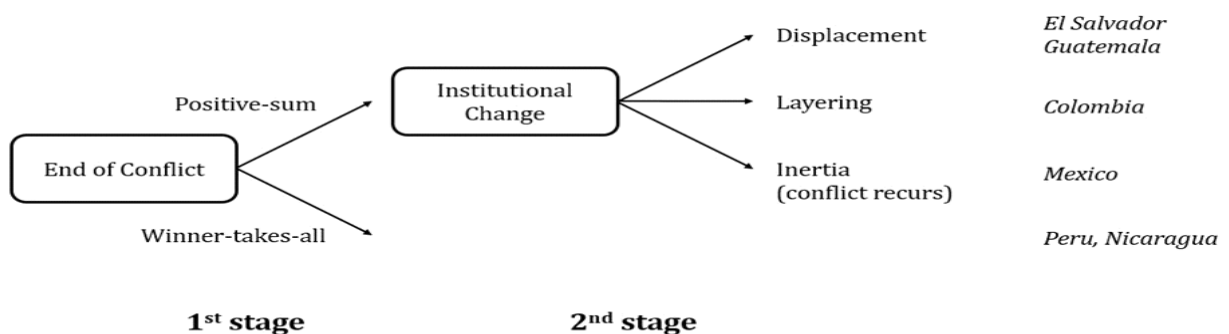
▪ Civil Conflicts in Latin America after the mid-20th century

Country	Incumbent	Insurgency	Duration	Negotiation	Accords
Nicaragua	Somoza (extreme-right)	FSLN	1978-1990	-	1990
El Salvador	Cristiani (right)	FMLN	1980-1992	1984-1992	1992
Guatemala	Arzú (right)	URNG	1960-1996	1987-1996	1996
Mexico	Zedillo (right)	EZLN	1994-present	1994-1996	1996
Colombia	Santos (central-left)	FARC, ELN	1964-2016	2012-2016	2016
Peru	Fujimori (right)	PCP, MRTA	-	-	-
Venezuela	Maduro (left)	J. Guaidó	2019-present	2019-present	-

-9-

III.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 Theoretical Classification of Six Cases



-10-

V. Conclusion and Beyond

- **Tentative Conclusions, “Old Foes as New Friends”**

- Overcoming the *Accountability Trap*, a viable exit option
- Strategic choices of both the incumbent and the insurgency lead to an unintended consequence of state-building
- Momentum of institutional change not exogenous but endogenous, as opposed to the critical juncture theory (Collier & Collier 1991)

-11-

V. Conclusion and Beyond

- **Strategies to Develop Further Research**

- Quantitative Analysis : times series cross-sectional, country-fixed effect
- Geographic stretching : collecting civil conflict cases from Asia in search for more institutional channels of state-building

-12-

Bibliography

- Collier, R.B. and Collier, D., 1991. Critical junctures and historical legacies.
- De Mesquita, B.B., Smith, A., Siverson, R.M. and Morrow, J.D., 2003.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MIT press.
- Fearon, J.D., 1994. Domestic political audiences and the escalation of international dispu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77-592.
- Galtung, J., 1969.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6(3), 167-191.
- Hadfield, G.K. and Weingast, B.R., 2014. Microfoundations of the Rule of Law.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7, 21-42.
- Lemke, Douglas. 2003. Development and War.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5 (4): 55–63.
- Mahoney, J. and Thelen, K., 2010. A theory of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Ambiguity, agency, and power*, 1-37.
- Jackson, Robert H. 1987. Quasi-states, Dual Regimes, and Neoclassical Theory: International Jurisprudence and the Third World. *International Organization* 41 (4): 519–49.
- Kingston, Paul, and Ian S. Spears, eds. 2004. *States-within-States: Incipient Political Entities in the Post-Cold War Er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Kurtz, M.J., 2013. *Latin American state building in comparative perspective: Social foundations of institutional ord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ter, B.F., 1997. The critical barrier to civil war settle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51(3), 335-364.



라틴아메리카 사회정책과 기본소득

LASAK 2020 Winter 2020년 12월 12일
이상현 (전북대 스페인·중남미학과)

이 발표문은 미완성의 초고에 기반하였습니다. 저자의 허락 없는 인용 또는 배포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sanghyunyi@gmail.com

Facts

- 2020년 COVID-19 대유행과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변화
 - 보건위기: COVID-19 대유행과 방역실패
 - 경제위기: 2015년 이후 지속된 저성장에 더해진 위기. 성장저하, 실업 확대
 - 사회위기: 불평등, 빈곤, 사회불만의 확대
- COVID-19 위기와 대안의 모색
 - 사회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 긴급처방과 기본소득 논의

연구목적과 질문

- 연구 목적
 - COVID-19로 인한 라틴아메리카 사회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의 대안 모색.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의 라틴아메리카 적용 가능성 탐색.
- Research Questions
 - COVID-19 대유행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 사회정책의 대안은 무엇인가?
 - 기본소득은 라틴아메리카 사회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연구구성
 - 1) 기본소득제에 관한 기존 연구, 2) 라틴아메리카 빈곤 추이 및 현황, 3) 라틴아메리카 사회정책의 발전 4) COVID-19 대유행과 라틴아메리카 기본소득 5)결론

기본소득제: 정의와 기존 연구

- 기본소득의 정의
 - “자산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기본소득네트워크 BIEN의 정의, 김교성 2009, 34 재인용)
 - “정치단위가 모든 개인에게 자산조사와 일에 대한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판 파레이스, 2006: 7; 윤홍식 2017, 89)”
 - “기본소득은 1) 가구가 아닌 개인에 지급되고, 2) 다른 종류의 소득 유무와 수준에 상관없이, 3) 근로수행이나 근로 의지와 무관하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소득보장제도와는 다름.”(Raventós 2007, 9; 김교성 2009, 40)
- 지급주체가 정치단위, 재원이 공적자원, 보편적(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선별도 배제)이며, 지급단위가 개인으로 ‘실질적 자유’의 실현 단위가 개인임을 의미.
-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보편성과 무조건성.

기본소득: 주장과 비판 (백승호, 이승윤 2018; 양재진 2018)

- 기본소득 옹호
 - 현행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문제 해결.
 - 낙인 문제 발생 방지.
 - 기존 복지국가의 관료제와 행정비용 문제 해결.
 - 공유부 배당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
- 기본소득 비판
 - 일자리 소멸이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면 됨. 필요성이 없음.
 - 재정소요가 과도하여 지지를 얻지 못함.
 - 재정중립적 기본소득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임.
 -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시민교육이 우선.
 - 인간의 욕구는 기본소득의 욕구를 넘어서.
 - 현금배당과 시장화 강화의 문제.
 - 좌파의 경우 임금노동 부정.

• 기본소득의 실현화 방법 (윤홍식 2017, 113)

- 1. 급진적 방법.
- 2. "욕구에 근거해 가장 시급한 인구집단(노인, 아동, 청년 등)부터 점진적으로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불리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 보편적 사회수당을 도입함으로써 완전한 기본소득에 다가서는 길."
- 3. "현재 복지급여를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으로 대체하기 시작해 점진적으로 완전한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길"

라틴아메리카의 빈곤: 추이와 현황

-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복지지출의 확대로 라틴아메리카 빈곤의 지속적 감소를 경험했으나, 2015년 이후 빈곤 감소 정체. COVID-19 대유행과 함께 빈곤의 급격한 증가 예상.
- 1980년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 시장지향적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국가의 후퇴)
- 1990년대 말 이후 원자재 붐과 정치의 변화(Pink-tide) → 국가 역할의 확대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 2003-2014년 평균 GDP 성장률 2.5%
 - 고용률: 2003년 52.3% → 2018년 56.7%
 - 실업률: 2003년 11.2% → 2018년 8.4%
 - 빈곤율: 2002년 44.5% → 2017년 30.2%
 - 절대빈곤율: 2020년 11.2% → 2017년 10.2%

- 빈곤 Trend(Arza and Maurizio 2020, 219)
 - 1st stage(2002-2008): 빈곤율의 급격한 감소. 노동시장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 2nd stage(2008-2014): 2008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빈곤율의 완만한 감소.
 - 3rd stage(2015 - 2019): GDP 성장률의 저하 속에 노동시장 지표 악화, 빈곤 및 절대빈곤 인구 증가.
 - 4th Stage(2020 -): COVID-19 대유행 이후 성장률의 급격한 저하와 노동시장의 붕괴. 빈곤 및 절대빈곤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 빈곤 4.4% 증가(2870만 명 증가)하여 34.7%(2억 1470만 명으로), 절대빈곤은 2.6%(1590만 명) 증가하여 8340만 명으로 (ECLAC 2020)
- 라틴아메리카 빈곤의 특징
 -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차이가 큼.
 - 각 국의 거시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음.
 - 노동수입과 비노동수입(연금, 현금성 복지 지급 등)의 영향이 큼.
 - 국가별 차이와 함께, 어린이, 농촌, 원주민 등이 빈곤에 취약함.

라틴아메리카 사회정책의 발전

- 20세기 수입대체산업화와 기여형 사회보험에 의존한 라틴아메리카 사회보장 제도.
 -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사회보장제도, 빈민층이나 비공식부문 노동자 대상의 공공부조 부재.
- 1980년대 외채위기와 신자유주의 개혁 (박윤주 2014)
 - 기존 공적 연금제도 개혁: 기여형 사회보험제도의 부분적/완전 민영화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과 공공부조정책의 도입



출처: LAC Social Protection Database, Cerutti et al.(2014: 13-14)에서 재인용

강정원 2019, 114에서 재인용

- 1990년대 말 Pink-tide와 조건부현금이전사업(CCT)
 -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아닌 선별 정책인 CCT 도입 또는 확대(강정원 2019)
- “조건부현금지급은 국가가 특정 기준에 따라 선별(targeting)한 수혜 가정에 현금을 지급하되 그 조건으로 수혜 가정은 국가가 규정하는 의료나 교육 혜택에 대한 의무, 특히 아동에 대한 복지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태균 2017, 40)

라틴아메리카 CCT 현황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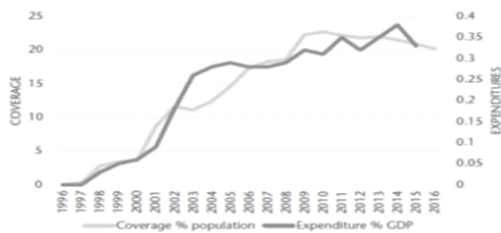


Figure 17.3 Coverage rates and total spending in conditional cash transfer programmes.
Source: Authors' elaboration based on Cecchi and Atuesta 2017, Table A.8.15.

- 현재 모든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CCT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가장 중심적인 사회복지정책이 되었음.
- 현금지급의 영향을 넘어서서 조건들의 독립적 역할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효과는 부정적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긍정적임.
- 2016년 기준으로 1억 3천만(총인구의 약20%)가 CCT 프로그램의 수혜자임. 평균 지급되는 액수는 일인당 연간 미화 153달러임. 이는 사회복지지출의 3.1% 그리고 GDP의 0.33%임.

COVID-19 대유행과 라틴아메리카 기본소득 논의

- 2000년대 이후 학계와 정책담당자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기본소득 논의.
 - 브라질의 경우, 1970년대부터 기본소득 제안. Eduardo Suplicy 상원의원(노동자당)의 제안.
 - CoVID-19를 계기로 논의 확대.
- 기본소득과 개발도상국
 - "기존 복지체제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은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기본소득과 같은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제도의 필요성은 더 크다. 바르단(Bardhan, 2016)도 기본소득이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더 유용한 제도라고 주장. (윤홍식 2017, 92)

- “브라질의 기본소득으로 인식되고 있는 Bolsa Familia 프로그램(Bolsa Familia Program)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현금급여 방식의 사회부조제도(김교성 2009, 44)”로서 “자산조사를 거치며,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점과 급여수준이 빈곤을 벗어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신재성, 2014; 윤홍식 2017, 94 재인용).”

〈표 2〉 기본소득과 다양한 소득보장정책

	보우세 파밀리아 (브라질)	알라스카 영구가급 (미국)	나미비아 기본소득 (시험사업)	사회수당 (뉴질랜드) 기초연금	청년수당 (사우디)	청년배당 (영국)	핀란드 기본소득 (2017년 시험사업)	루마니아 소득세	헝가리 소득	사회적 지분	기본소득 (2016년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안)
무조건성	●	●	●	●	▲	●	●	○	▲	●	●
보편성A	○	●	●	●	○	○	▲	○	○	○	●
보편성B	●	●	●	○	○	○	○	●	○	○	○
정기성	●	●	●	●	▲	▲	●	●	●	○	●
개인단위	○	●	●	●	○	○	○	▲	○	○	○
핵심성	▲	▲	▲	▲	▲	▲	●	▲	▲	○	●
지급주체	●	○	○	●	○	○	○	○	○	○	○
권리성	●	●	○	●	○	○	○	○	○	○	○
●: ▲: ○	5:1:2	7:1:0	5:1:2	6:1:1	3:2:2	5:2:1	5:1:2	3:1:4	4:2:2	6:0:2	8:0:0

※ 참고: 보편성A: 자산 및 소득조사가 없는 경우 / 보편성B: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선별이 없는 경우 / 정기성: 월, 년 단위 / 지급주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 / 역일정: 1인 가구 빈곤선 또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 / ●: 총액, ▲: 부분총액, ○: 불충족

윤홍식 2017, 93.

- UNDP: 전세계 132개국 개발도상국에 임시(재난)기본소득 권유.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2/3이 비공식부문으로 61%가 어떤 형태의 사회보장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음. 상황 극복을 위한 임시현금지급 권고.
- ECLAC: Targeted Basic Income. 모든 빈곤인구에게 빈곤선에 부합하는 기본재난소득을 6개월 간 할 것을 권고. 라틴아메리카 인구 1/3을 넘는 2억 1500만 명 대상. 총GDP의 2.1% 예산 소요 예상.
 - 특히 ECLAC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현금지급을 COVID-19 이후에도 지속할 것과 빈곤 인구만이 아닌 상위계층에게도 확대할 것을 권고. 이는 장기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진화를 가능케 할 것이라 주장(ECLAC 2020).
 - 예) 멕시코의 기본소득 추산. 최소복지선을 도시기본식량바스켓(US\$73 per month, 2020년 3월 기준)에 맞출 경우 2020 GDP의 10.3%, 최저임금(US\$167) 또는 식량 및 비식량바스켓(US\$144)에 맞출 경우 각 2020 GDP의 23.5%와 20.2%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즉 소요예산으로 볼 때 장기적 관점이 필요.

-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 필요한 인구를 대상으로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기본소득과는 다름. 기본소득은 너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함. 즉 보장소득은 라틴아메리카 인구의 65%에 게만 지급(이미 빈곤인 30%와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35%에게 지급) (Eslava et al. 2020)
- 2020년 브라질의 '취약계층 및 비공식 노동자 긴급지원(Auxílio Emergencial) 일명 'coronavoucher':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한 취약계층 및 비공식 부문 노동자 생계방안. 3개월 간 매달 600헤알 지급(여성가구주는 1,200헤알).

Conclusion

- COVID-19와 라틴아메리카의 재난지원
 - 보편적인 기본소득보다는 Targeted 재난지원금의 형태.
 -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라틴아메리카의 기본소득: 사각지대 문제, 효율적 선별 및 비용.
 -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보편적 의미의 기본소득도 대안의 하나로 제기되나 기본소득에 내재된 단점의 극복 가능성이 불투명함: 과도한 재정소요 및 효과에 대한 의구심.

• 라틴아메리카 기본 소득 논의와 과제

- 라틴아메리카 조세제도와 기본소득: 역진적 성향의 라틴아메리카 조세제도와 기본소득제의 효율성. 보편적 소득신고 체계 확립 등 조세제도 개혁 필요.
- ‘부분 기본소득’이라 불리는 기존 사회수당의 강화와 기본소득 논의.
- 그러나 사회정책 개혁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 온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세계 최초의 국가적 차원의 ‘기본소득제’ 도입의 가능성 존재. COVID-19 대유행은 이러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음.

참고문헌

- 강정원(2019), “라틴아메리카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조건부현금이전(Conditional Cash Transfer): 불확실성의 확산과 분배정치,” 『중남미연구』, 제38권 2호, 95-132.
- 광재성(2011), “불사 패밀리(Bolsa Familia)를 중심으로 본 브라질의 사회정책,”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8(2), 5-28.
- 김경란(2020), “코로나19가 브라질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부의 대응,” 『국제노동브리프』, 2020년 6월, 94-106.
- 김교성(2009),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Vol. 36, No. 2, pp. 33-57.
- 김민수, 박병현(2017), “국가 간 기본소득 사례 비교연구,” 『인문사회』, 21.
- 김이배(2015), “브라질 불사 패밀리(Bolsa Familia) 정책의 한국 사회복지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7권, 제2호, 209-245.
- 김태일, 이주하, 최영준(2016), “복지국가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정부학연구』, 22(3).
- 박윤주(2014), “라틴아메리카의 의료개혁을 통해 본 신자유주의적 국가개혁의 패턴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 제16권 제1호, 35-64.
- 백승호, 이승윤(2018),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3호, pp. 37-71.
- 양재진(2018),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한국사회정책』, 25(1).
- 윤홍식(2017),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기초연금, 사회수당, 그리고 기본소득,” 『비판사회정책』, 제54호, 81-119.
- 임태균(2017), “신자유주의와 복지 패러다임: 베네수엘라 복지정책의 탈보편주의화,”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30, No. 4, 37-61.
- 황인성(2017), “기본소득지급 사례연구를 통한 ODA 적용 방안 논의,” 『개발과 이슈』, 제36호.

- Arza, Camila and Roxana Maurizio(2020), "Poverty and Social Policy in Latin America: Key trends since c. 2000," in Bent Greve (ed.),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 of Poverty, Routledge.
- Borges, Fabián(2018), "Neoliberalism with a Human Face? Ideology and the Diffusion of Latin America's Conditional Cash Transfers," *Comparative Politics*, 50(2).
- Cecchini, Simone and Rodrigo Martínez(2012), *Inclusive Social Protection in Latin America: A Comprehensive, Rights-based Approach*, ECLAC.
- Cruz-Martínez ed.(2019), *Welfare and Social Protection in Contemporary Latin America*, Routledge.
- ECLAC(2020), "The social challenge in times of COVID-19," Special Report COVID-19 No. 3.
- Eslava, Marcela, Andrés Zambrano, and Andrés Álvarez(2020), "Four Steps to Making Guaranteed Income a Reality in Latin America," *Americas Quarterly*, August 5, 2020.
- Gentilini, Ugo, Margaret Grosh, Jamele Rigolini, and Ruslan Yemtsov eds.(2020), *Exploring Universal Basic Income: A Guide to Navigating Concepts, Evidence, and Practices*, World Bank Groups.
- Gutiérrez, Javier(2017), "Universal basic Income: An Alternative path to development," *Global Americans*.
- LoVuolo, Rubén(2012), "Prospects and Challenges for the Basic Income Proposal in Latin America," *Basic Income Studies*, 7(1).

- Matt, Sedlar(2020), "The UN's Anti-Poverty Proposal for Latin America: A "Basic Emergency Income," *The Americas Blog*, Washington.
- McDonough, Brian and Jessie Bustillos Morales(2020), *Universal Basic Income*, Routledge.
- Molina, George Gray and Eduardo Ortiz-Juarez(2020), *Temporary Basic Income: Protecting Poor and Vulnerable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UNDP.
- Torry, Malcolm ed. (2019), *The Palgrave International Handbook of Basic Income*, Palgrave Macmillan.
- Widerquist, Karl(2018), *A Critical Analysis of Basic Income Experiments for Researchers, Policymakers, and Citizens*, Palgrave Macmillan.
- World Bank(2020), *The Cost of Staying Healthy*.

2부 세션4

대학원 세션

[좌 장]

- 우석균(서울대)

[발 표]

- 김유진(경희대 대학원) “『도냐 바르바라』에 나타난 20세기 초반 베네수엘라의 민족-국가 형성”
- 조은지(경희대 대학원) “『Nadie me verá llorar』의 새로운 여성 주체와 멕시코 역사 쓰기”
- 김형중(경희대 대학원)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 나타난 새로운 남성성의 모색”
- 이미경(경희대 대학원) “La reinterpretación de *Malinche* desde el perspectiva moderna”
- 김지선(경희대 대학원)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과 『Cambio de armas』: 여성의 몸을 통해 드러나는 이중적 위계 구조”

[토 론]

- 조혜진(고려대), 박호진(한국외대)

『도냐 바르바라』에 나타난 20세기 초반 베네수엘라의 민족-국가 형성

김유진 (경희대학교 석사과정)

1. 서론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그의 저서 『상상된 공동체 *Imagined Communities*』(1983)에서 민족은 국가 안에서 상상되고 직조되어 만들어진 집단이라 주장한 바 있다(베네딕트 앤더슨, 2018, p. 51). 이는 한 단체의 구성원들이 경험한 정치·사회·문화 등을 공유함으로써 단일한 민족공동체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앤더슨에 따르면 근대적인 개념으로서의 민족주의(nacionalismo)가 가장 먼저 전파된 아메리카 대륙으로(베네딕트 앤더슨, 2018, p.110), 19세기 초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각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유럽의 인쇄자본주의 발달을 통해 국가가 경험한 역사·사회·문화 등을 공유하게 된다. 이에 '스페인령'이라는 식민 체제에서 분리된 국가들은 저마다의 "상상된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독립 이후 지배계층으로 부상하게 된 크리올요(criollo) 출신 지식인들은 민족-국가(Estado-Nación) 정체성 형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지배 권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국가의 근대화를 이루고자, 독립된 영토 구획 내 구성원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해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하고자 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아르헨티나의 도밍고 파우스띠노 사르미엔토(Domingo Faustino Sarmiento)는 『파쿤도: 문명과 야만 *Facundo o Civilización y Barbarie*』(1845)¹⁾을 출간했다. 『파쿤도, 문명과 야만』은 아르헨티나를 포함해 라틴아메리카의 발전과 근대화를 위해 분석하고 있으며, 19세기 라틴아메리카 사상가들과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조구호, 2013, p. 50). 사르미엔토는 『파쿤도, 문명과 야만』에서 아르헨티나의 지리(la geografía), 뽀빠스(pampas), gaucho(가우초)를 아르헨티나의 근대화를 방해하는 야만으로, 도시(la Ciudad),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를 문명으로 묘사하며 이와 같은 이분법 구조를 통해 당시 아르헨티나가 지향해야 할 민족-국가의 모습을 제시한다.

소설 『도냐 바르바라 *Doña Bárbara*』(1929)²⁾ 역시 『파쿤도, 문명과 야만』과 마찬가지로 당시 독재정권을 비판하며,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분법 논의를 가져와 독립 이후 지속해서 논의되어온 베네수엘라의 민족-국가 형성 과정에서의 딜레마와 20세기에 도래할 민족-국가 정체성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도냐 바르바라』에서의 문명과 야만은 사르미엔토의 이분법 구조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 사르미엔토가 아르헨티나의 문명화를 이룩하기 위해 없어져야 할 것으로 아르헨티나의 특성인 뽀빠스와 가우초를 야만으로 묘사하여 구분했다면, 『도냐 바르바라』에서는 베네수엘라의 특징인 평원(lano)과 야네로(lanero)를 베네수엘라의 문명화와 민족-국가 정체성 형성을 위해 버리지 않고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사르미엔토가 뽀빠스를 벗어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같은 도시 공간과 유럽을 아르헨티나가 나아가야 할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도냐 바르바라』는 도시 까라카스(Caracas)에서 평원(lano)으로 돌아와 평원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의 문명화를 이룩하고자 함을 나타내고 있다.

소설 『도냐 바르바라』는 베네수엘라 정치인이자 작가였던 로물로 가예고스(Rómulo Gallegos)의 대표작으로, 대지의 소설(La Novela De la Tierra)³⁾ 장르의 주요 작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Alonso Vález

1) 작품은 라 리오하(la Rioja) 주 출신 까우디요(caudillo) 후안 파쿤도 키로가(Juan Facundo Quiroga, 1788-1835)의 일생을 중심으로 연방파와 중앙집권파의 갈등과 투쟁을 다룬다.

2) 로물로 가예고스, 『도냐 바르바라』(1984) 삼성출판사, 장선영 옮김.

3) 대지의 소설(La Novela De la Tierra)은 지역주의(regionalista) 혹은 크리올주의(criollista) 소설로도 불리며, 약 1915년부터 1945년 까지 사실주의적 방법으로 당시 시대상을 묘사하는 소설들을 일컫는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멕시코 작가인 마누엘로 아수엘라(Manuelo Azuela)의 *Los de abajo*(1915)를 비롯하여 콜롬비아 작가 호세 에우스파

Carlos Javier, 1983, p.6). 작품은 도냐 바르바라라는 여성 인물의 서사를 통해 당시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후안 비센테 고메즈(Juan Vicente Gómez) 정권에 대한 저항⁴⁾을, 그리고 산토스 루사르도(Santos Luzardo)라는 이상적인 남성 인물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민족-국가 정체성 형성 방향을 제시한다.

도리스 소머(Doris Sommer)는 자신의 저서 『창건 소설 Foundational Fictions』(1992)에서 19세기 라틴아메리카의 로맨스 소설이 독립 이후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쓰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Doris Sommer, 1992, p. 7). 소설 속 주인공 남녀 간의 사랑이 좌절되거나 결혼으로 완성되는 서사를 알레고리로 사용해 당시 지식인(작가)이 이룩하고자 하는 민족-국가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소설 『도냐 바르바라』 또한 19세기 라틴아메리카 소설의 주요 기능으로 여겨졌던 '국가의 건설(national building)'을 위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앞서 언급한 사르미엔토의 이분법이 소설 『도냐 바르바라』에서 어떠한 방식을 통해 전개되고 있으며, 20세기 초 로맨스 소설로서 『도냐 바르바라』가 베네수엘라의 민족-국가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고자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도냐 바르바라』에 나타난 문명과 야만의 변주

『도냐 바르바라』의 주요 등장인물은 야만(la barbarie)을 상징하는 도냐 바르바라, 토착 세력이며 교육을 통해 문명화되었으나 자기 파멸과 함께 도냐 바르바라에 굴복하게 된 로렌소 바르케로(Lorenzo Varquero), 도냐 바르바라와 로렌소 바르케로 사이에서 태어난 마리셀라(Marisela) 그리고 문명화된 지식인이지만 베네수엘라의 지역성(lo llanero)을 잃지 않은 산토스 루사르도 총 네 명이다. 이들의 관계는 문명과 야만이라는 대립 구도를 갖추고 있으며, 주인공 도냐 바르바라를 중심으로 인물들의 갈등 관계가 나타난다.

도냐 바르바라는 '남자를 잡아먹는 여자'로 알려진 엘 미에도(el miedo) 목장 여주인으로, 어린 시절 한센병에 걸린 남성에게 팔려 가게 되는 운명에 놓인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아스드루발이라는 남성을 알게 된 바르바라는 글 읽는 법과 쓰는 법을 배우게 되고, 팔려 가게 될 것이라는 자신의 상황을 깨닫게 된다. 바르바라는 아스드루발의 도움으로 자신을 소유한 주인에게서 도망치려 했으나, 그 일당에 잡혀 유린당한 후 도망쳐 벗어나게 된다. 이후 바르바라는 한 원주민 마을에서 지내게 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에 못 남성들이 매혹되자, 마을 여성들의 질투로 마을에서조차 떠밀려 떠나게 된다. 평원에 자리 잡게 된 바르바라는 까라카스(Caracas)에서 공부를 한 지식인 로렌소 바르케로를 알게 된다. 로렌소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목장 라 바르케레냐(la barquereña)로 돌아와 우연히 마주하게 된 바르바라의 아름다움에 빠져 그녀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라 चु스미따(la chusmita) 지대로 쫓겨나게 된다. 알코올에 빠져 살아가는 로렌소를 보필하는 것은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마리셀라이다. 로렌소 바르케로와 도냐 바르바라 사이에서 태어난 마리셀라는 도냐 바르바라에게는 재산을 뺏겨 올 도구였으며, 로렌소에게는 그저 미스터 댄저에게 술을 꺾을 유일한 소유물이자 의미가 없는 존재였다. 마리셀라는 아버지 로렌소에 의해 문자 그대로 '야만'처럼 길러져 살아왔다. 그런 마리셀라에게 까라카스에서 공부를 하고 온 새로운 지식인 산토스 루사르도(로렌소의 사촌)가 나타나게 된다. 그는 마리셀라에게 쓰는 법부터 말하고 글을 읽고 쓰는 법까지 알려주는 '교육'을 통해 '문명화'시킨다. 사실 도시에서 공부하던 산토스 루사르도가 평원으로 돌아온 이유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알따미라(Altamira) 목장과 관련된 불법적인 문제에 벗어나고자 그 목장을 팔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야만을 상징하던 기존의 <야노 법>이라 불리지 않고 <도냐 바르바라의 법>이라 불리며, 도냐 바르바라에 의해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잔인하게 작용하는 것을 보고, 지식인으로서 '야만 = 도냐 바르바라' 맞서기로 하며 평원에 머물게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로물로 가예고스는 작품 속 인물들을 문명과 야만으로 구별 짓고 있다. 흥미로운 지점은 도냐 바르바라와 마리셀라를 야만의 이미지로, 베네수엘라의 부유한 지방 호족 출신인 로렌소

시오 리베라(José Eustasio Rivera)의 *La Vorágine*(1924), 푸에르토리코 작가 엔리케 라겔레(Enrique Laguerre)의 *la llamarada*(1935) 등이 포함된다.

4) 1918년 석유를 통한 '경제적 붐'을 맞이했던 베네수엘라는 후안 비센테 고메즈(Juan Vicente Gómez, 1857-1935)를 중심으로 한 까우디요 세력의 지속되는 횡포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Omar A. Rodríguez, 2000, pp. 4-5).

바르께로와 산토스 루사르도를 문명으로 묘사해 여성과 남성을 다시 이분화하여 그려낸다는 것이다. 이는 사르미엔토의 『파곤도, 문명과 야만』에서 야만적 이미지를 남성 가우초(gaucha)로 묘사한 것과 차이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성별로 나뉜 이분법적 이미지는 도냐 바르바라를 '훼손된 자연(돌이킬 수 없는 야만)'으로, 마리셀라를 문명화되는 야만으로 묘사하는 반면, 로렌소 바르께로는 야만에 굴복하게 되는 문명으로, 산토스 루사르도는 베네수엘라적 특징을 기반으로 한 문명(인)으로서 묘사되고 있다.

이처럼 작품은 기존의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을 변주해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알레고리적 구조⁵⁾를 통해 인물들과 공간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내며 새로운 민족-국가 형성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작가 로물로 가예고스는 베네수엘라의 문명화를 위해 '글(escritura)= 교육'을 필수적인 것으로 소설 속에서 나타내고 있다(José Castro Urisote, 1996, p. 334). 이는 바르바리따(어린이절 도냐 바르바라의 애칭)가 아스드루발을 만나 글을 깨우치게 되는 장면과 로렌소 바르께로와 산토스 루사르도가 수도 까라까스에서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라는 것, 그리고 산토스 루사르도가 마리셀라를 문명의 질서 체계로 들여오기 위해 교육하는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작가는 로렌소 바르께로와 산토스 루사르도 두 지식인을 대조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베네수엘라의 야만에서 벗어나 문명으로 이끌 수 있는 '이상적인 선도자'상을, 도냐 바르바라와 마리셀라를 통해 민족-국가 정체성에 포함될 수 있는(또는 포함될 수 없는) 야네로(lanero)⁶⁾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로렌소가 외쳐왔던 "우리 모든 야네로들이 내부 속에 지닌 켄타우로스를 죽이는 것이 필요합니다."와 "켄타우로스는 야만이다. 따라서 이 야만적인 켄타우로스를 전멸시켜야 된다(1989, pp. 160-161)."는 베네수엘라를 문명화로 이끌 '선구자'가 갖출 자질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식인으로 대변되는 로렌소와 산토스는 야네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곧 베네수엘라의 특성(lo venezolano)을 지닌 인물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베네수엘라 특성은 작가가 제시하는 민족-국가 정체성 형성에 있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이중적으로 내포한다. 로렌소가 외쳤던 켄타우로스의 경우 베네수엘라인들이 지닌 특성(lanero)에서 부정적인 성질을 의미하고 있다.

로렌소 바르께로는 "켄타우로스를 죽여야만 한다(1989, p. 160)"고 외치지만, 결국 학업 과정을 포기하고 알코올에 의존하며 야만에 굴복한 지식인으로 묘사된다. 앞서 로물로 가예고스가 강조했던 문명화를 위한 '교육'을 실패한 지식인 로렌소는 야만을 상징하는 도냐 바르바라와의 만남에서도 그녀의 야만성을 제거하지도 잠재우지도 못하고 오히려 야만인보다 더 야만적인 인물이 되어버린다. 또한, 도냐 바르바라는 스스로의 야만성에 굴복된 로렌소 바르께로와의 만남에서 과거 아스드루발을 향한 좌절된 사랑과 남성들로부터 겪은 성폭력적 트라우마를 상기하게 되고, 남성에 의해 억압되어 있던 욕정과 증오를 표출하게 된다. 도냐 바르바라는 로렌소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딸 마리셀라를 '남성에 의한 폭력의 산물'로 여기며, 남성을 향한 원한은 더욱 증폭하게 된다. 그리고 로렌소 바르께로의 라 바르께레냐 목장을 빼앗아 엘 미에도(el Miedo) 목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여 목장 주인(cacica)인 되어 비이성적인 행위들을 통해 평원을 군림하기 시작한다.

결국 켄타우로스(베네수엘라 특징의 부정적인 측면)를 이겨내지 못하고 굴복한 지식인(로렌소 바르께로)은 또 다른 야만(도냐 바르바라)을 문명화로 이끌어 포섭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Hedy Habra, 2003, p. 133). 이처럼 작가는 로렌소 바르께로와 도냐 바르바라의 만남과 갈등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민족-국가 정체성 형성의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

5) 송상기, 「도냐 바르바라: 알레고리적 가면」(1999)을 참고하십시오.

6) 야네로(lanero)는 베네수엘라의 평원(lano) 거주민을 뜻한다. 이는 베네수엘라적 특징을 지닌 사람들을 의미하며 동시에 작품에서는 문명화돼야 하는 '야만'을 의미한다.

3. 포섭과 배제를 통한 새로운 민족-국가 형성

로물로 가에고스는 인물들 간의 갈등을 통해 새로운 민족-국가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베네수엘라의 특성(lo venezolano)을 기반을 두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Bladimir Ruiz, 2004, p. 88).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야만성(centauro)으로 인한 '교육'의 미완성은 작가가 이상적으로 제시하는 민족-국가 정체성에 부합될 수 없었다. 이에 작가는 로렌소 바르께로와 반대되는 인물 산토스 루사르도를 등장시킨다. 따라서 작품의 또 다른 지식인 산토스 루사르도와 도냐 바르바라, 마리셀라의 관계를 통해 베네수엘라의 민족-국가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산토스 루사르도는 로렌소 바르께로와 사촌지간으로 그 역시 평원 토착 계급의 자손이다. 하지만 로렌소 바르께로와 달리 산토스 루사르도는 까라카스에서 모든 학업을 마친 후 '변호사'가 되어 평원에 돌아온다. 그는 자신이 물려받은 목장(Altamira) 토지를 침범해 영토를 빼앗아가고,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을 빼돌리는 도냐 바르바라와 그 일당에 맞선다. 그는 <야노 법>이 아닌 '도시의 법'에 기반한 '울타리 작업'을 주장하며 평원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이에 도냐 바르바라는 이전까지 사용해왔던 주술적 행위와 육체적 폭력을 통해 산토스 루사르도의 계획을 멈추게 하고 그를 굴복시키고자 한다. 산토스 루사르도(문명)와 도냐 바르바라(야만)의 계속해서 토지와 가축 문제에 관한 충돌 중에 산토스 루사르도의 일꾼 까르멜리또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⁷⁾ 그는 이 사건을 통해 더는 '법(문명)'을 통해 도냐 바르바라에게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 내재하여 있던 야네로의 야만성(centauro)을 분출한다. 그리고 도냐 바르바라를 찾아가 "(중략) 부인께서는 합법적인 방법에 관한 마음을 꼭 놓고 계셔도 무방할 것이외다(1989, p. 354)"라는 말을 남기고, 야만 대 야만으로 도냐 바르바라에 응수하기 시작한다.⁸⁾

처음 산토스 루사르도를 마주하게 된 알따미라 목장의 일꾼들은 도시에서 평원으로 돌아온 산토스 루사르도를 '야네로' 답지 못 한 겉모습과 야노의 관습이 아닌 도시의 '법'을 통해 평원을 변화시키고 도냐 바르바라의 악행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에 실망한다. 그러나 이후 산토스 루사르도가 '말 길들이기(la doma)'와 같은 베네수엘라 특성으로서 야네로 관습을 수월하게 해내는 모습에 일꾼들은 점차 신뢰감을 느끼게 되며, 평원을 이끌 선구자로서 바라본다. 즉, 로렌소 바르께로는 자신 안에 있던 '켄타우로스'를 죽이지 못하고 굴복했지만, 산토스 루사르도는 야네로의 양면적 야만성과 도시에서의 문명(교육)을 모두 갖춘 지식인으로서 베네수엘라의 이상적인 인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도냐 바르바라는 산토스 루사르도로부터 자신의 첫사랑 아스드루발을 떠올리며, 새로운 여성으로 거듭나고자 시도한다. 그러나 산토스 루사르도를 굴복시키기 위해 도냐 바르바라는 이전과 다름없이 야만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음흉한 주술 행위를 이어나가며, 산토스 루사르도를 제외한 다른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위협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결국 변화되지 못한 도냐 바르바라의 야만적인 모습은 베네수엘라의 민족-국가 정체성 과정에 편입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마리셀라를 향한 '모성애 결핍'은 도냐 바르바라가 민족-국가 형성에 조화될 수 없는 결함이기도 하다(Victorien Lavou Zoungbo, 1996, p. 213). 모성애 결여는 남성 지배 계급이 구축한 이상적인 여성상(어머니상)에 부합하지 못하며 더욱이 여성(마리셀라)과 여성(도냐 바르바라)의 관계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마리셀라는 "잠자는 미녀"에서 산토스 루사르도에 의해 깨어나 문명화되는 야만으로 묘사되고 있다. 도냐 바르바라에게 버림받고 로렌소 바르께로부터 방치되어 자연(야만)의 상태로 살아온 마리셀라는 산토스 루사르도를 통해 씻는 법부터 말하는 법 등을 학습하기 시작해 야만에서 벗어나게 된다.⁹⁾ 마리셀라의 변화는 단순히 야만에서 문명으로 변화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후 마리셀라가 스스로의 야만성¹⁰⁾에 고뇌하는 산토스 루사르도를 구제하는 장면은 민족-국가 정체성 형성에 있어 지식인

7) 사실 까르멜리또의 죽음은 발비노 빠이바(도냐 바르바라의 정부)에 의한 일이었으며, 도냐 바르바라는 이 사건을 통해 산토스 루사르도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8) 도냐 바르바라의 수하인 몬드라고네스 형제(바린 지방 출신의 범죄자)를 찾아가 그들의 집에 불을 지르게 하고 권총으로 위협해 알따미라 목장으로 데려간다. (1989, pp. 355-356)

9) 마리셀라의 공간적인 이동(자연 원상태의 라 추스미따 지대에서 벗어나 알따미라 목장으로 옮기게 되는 것)은 상징적으로 문명화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남성과 문명화된 여성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결론 – 20세기 초 민족-국가 형성의 한계

소설 『도나 바르바라』는 베네수엘라 지식인 로물로 가예고스가 제시하는 20세기 초 민족-국가 정체성에 대한 방향은 19세 사르미엔토가 제시했던 이분법과는 다르게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파곤도, 문명과 야만』에서 사르미엔토가 아르헨티나의 문명화를 위해 아르헨티나 특성을 야만으로 치부하며 완전히 소외시키고 있다면, 『도나 바르바라』에서는 야만을 포섭하여 문명화로 나아가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등장인물 간의 문명과 야만 대립은 베네수엘라만의 민족-국가 형성을 위해서는 베네수엘라적 특징(lo llanero)을 기반으로 한 지식인들의 주도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계몽된 자들만이 민족-국가에 포함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도나 바르바라』에서 문명화를 위해 베네수엘라의 모든 야만성을 포섭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드러내 보인다. 즉, 완전히 야만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선별적인 포섭'을 통해 민족-국가 정체성에 받아드리고 있다. 이는 작가 로물로 가예고스가 남성만을 '가족과 국가의 지도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Patricia Lapolla Swier, 2008, p. 103)에서 발생한 한계로 볼 수 있다. 야만을 상징하는 도나 바르바라가 남성 권위에 도전하며 문명-야만, 도시-평원, 남성-여성과 같은 이분법 구도의 균열을 일으켰으나, 남성 지식인에 의해 민족-국가 형성에 철저히 배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나 바르바라는 동일한 여성이자 과거 야만이었던 마리셀라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장면과 마리셀라가 순응적 태도로 남성 질서에 편입되는 것은 도나 바르바라가 해체하고자 했던 남성 헤게모니 구조를 다시금 정당화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로물로 가예고스가 남성 중심 제도 안에서 20세기 초반 베네수엘라의 민족-국가 정체성 형성에 있어 모든 인종과 계급을 포섭하고 있지는 않으나, 19세기에 완전히 배제하였던 야만을 선별적으로 포섭하며 베네수엘라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민족-국가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했음에 의의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로물로 가예고스, 『도나 바르바라』 삼성출판사, 장선영 옮김, 1984.

도밍고 파우스티노 사르미엔토, 『파곤도, 문명과 야만』, 아카넷, 조구호 옮김, 2012.

송상기, 「도나 바르바라: 알레고리적 가면」, 스페인어문학, Vol.14, 1999.

조구호, 「사르미엔토의 『파곤도』에 나타난 '가우초'의 의미」, 중남미 연구, 2013.

앤더슨, 베네딕트. 『상상된 공동체』, 도서출판 길, 2018.

Alonso Vélaz Carlos Javier, The novela de la tierra: The Discourse of the Autochthonous, Yale University, 1983.

Bladimir Chasqui, LA CIUDAD LETRADA Y LA CREACIÓN DE LA CULTURA NACIONAL: COSTUMBRISMO, PRENSA Y NACIÓN, Arizona State University - Languages and Literatures Nov. 2004.

Deborah Singer, CONFIGURACIÓN DE LAS RELACIONES DE GÉNERO EN LA NOVELA DOÑA BÁRBARA DE RÓMULO GALLEGOS, Revista Artes y Letras, Univ. Costa Rica. Vol. XXIX(1 y 2), pág. 43-58, 2005.

Doris Sommer, Foundational Fictions, The National Romances of Latin America, University of California, 1992.

Hedy Habra, "La Chusmita": pre-texto y resistencia a la escritura en "Doña Bárbara", Hispanic Journal, Vol. 24, pp. 127-142, 2003.

José Castro Urisote, UTOPIA Y TRANSGRESIÓN: EL IMAGINARIO NACIONAL EN LA OBRA DE RÓMULO GALLEGOS, Hispanic Journal, Vol. 17, pp. 329-344, 1996.

10) 산토스 루사르도를 굴복하기 위한 도나 바르바라의 마지막 계약에서 산토스 루사르도는 자신이 멜끼아데스(도나 바르바라의 수하로 잔인한 일들을 담당했던 자)를 죽였다고 착각하며 좌절한다.

Lavou Zoungbo Victoria, Discurso burgués y legitimación machista en Doña Bárbara de Rómulo Gallegos, REVISTA DE CRITICA LITERARIA LATINOAMERICANA, pp.211-225, 1996.

Omar A. Rodríguez, El imaginario nacional a través de las transformaciones del melodrama en Venezuela : de Doña Bárbara (novela) a El país de las mujeres (telenovel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00.

Patricia Lapolla Swier, Transgendering and the Emergence of Ambiguous National Subjects in Rómulo Gallegos's "Doña Bárbara", Hispanic Journal, Vol. 29, No. 1, pp. 91-105, 2008.

『Nadie me verá llorar』의 새로운 멕시코 여성 주체와 멕시코 역사 쓰기

조은지 (경희대학교)

I. 물라토 여성이 겪은 사회

마틸다 (Matilda)는 멕시코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인 멕시코 혁명의 처음부터 끝까지 겪은 여성이다. 그녀의 태생은 물라토, 즉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피는 마틸다를 사회적 변두리로 밀었다. 그녀가 살았던 사회는 여러 번의 정치 혼란기를 겪었다. 그러나 정권과 사상의 변화는 그녀의 위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마틸다는 포르피리아토(Porfiriato) 시대, 혁명의 시대, 그 외에 여러 번의 정권 교체 동안 어떠한 사회에서도 그녀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

마틸다가 살았던 인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처음 멕시코시티 (La Ciudad de México)에 두려움을 가지고 상경했을 때는 포르피리아토 시대였다. 이후 그녀는 혁명집단 La Causa에 들어가 멕시코 혁명에 참여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인생 대부분을 정신병원에서 보냈다. 마틸다는 멕시코의 기득권층의 삶도, 멕시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혁명 단원으로서의 삶도, 어떤 사회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신병원 환자로서의 삶도 살아본 인물이다. 그녀는 언제나 외로운 삶을 살았다. 사회마다 그녀는 자기 이름을 찾아다녔다. 시대가 달라질 때마다 마틸다의 이름은 달라졌으며, 그녀가 정신병원에 수감된 후 비로소 그녀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다.

1.1 포르피리아토 시대의 정숙한 여성 (La Mujer Decente)

마틸다 부르고스 (Matilda Burgos)는 파판틀라 (Papantla)에서 나고 자랐다. 그녀는 끔찍한 일을 뒤로 한 채 삼촌 마르코스 부르고스 (Marcos Burgos)가 있는 멕시코 시티 (La Ciudad de México)로 간다. 의사인 마르코스는 마틸다와 처음 마주쳤을 때, 마틸다를 그의 프로젝트를 위한 실험체로 여겼다. 그의 프로젝트는 좋은 시민 되기 (Buen ciudadano)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1900년에 과학 지상주의를 신봉하는 집단인 Cientificos가 병리학적 개념인 위생을 사회에 적용해 사회에 해가 되지 않는 위생적인 인간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규율에 반하는 사람들을 비위생적인 인간으로 분류하였다. 비위생적인 인간은 주로 가족 구성이 불안정한 사람, 알코올 중독자, 과도하게 매운 음식을 먹는 풍습을 가진 사람들, 범죄자, 광인, 매춘부, 아나키스트 등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데 악영향을 미치는 이들을 말한다. 훌리오 게레로 (Julio Guerrero)는 비위생적인 사람들을 아프고 전염성이 있는 인간으로 취급했으며, 그들이 사회에 그들의 병을 전염시키기 전에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주장에 따라 이러한 사람들은 감옥과 정신병원에 수감되었으며 표면적으로는 이 장소들이 그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공간이라고 포장했으나 실상은 그들을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한 감금의 공간이었을 뿐이다. 마틸다는 위생적인 인간(좋은 시민)과 정숙한 여성이 되려 한다. 그녀는 포르피리아토 시대에 속하는 시민이 되고자 한다. 마르코스 부르고스의 위생 강의를 실천하며 매일 같은 일상을 살아간다. 마틸다는 정숙한 여성이 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사회가 제시하는 규율에 자신을 맞춰간다. 이 시대 그녀의 이름은 정숙한 여성이다.

LECCIONES DE HIGIENE DE MARCOS BURGOS

1. Lavarse las manos antes y después de comer, antes y después de usar el inodoro, antes y después de dormir.
2. Mantenerse continuamente ocupado para preservar la higiene mental. La ociosidad es la madre de todos los vicios.
3. Tomar grandes cantidades de agua hervida para ayudar a la digestión y prevenir eventuales deshidrataciones. Esto especialmente en los meses de sequía.
4. Evitar corsés y cualquier ropa ajustada que pueda dificultar la circulación sanguínea.
5. Evitar el uso de cosméticos y de perfumes. Los primeros dañan la piel y los segundos causan neurastenia y otras

malformaciones nerviosas.

6. Dormir un mínimo de seis y un máximo de ocho horas al día.

7. Procurar bañarse hasta tres veces al día durante los periodos menstruales. Durante esos días es necesario evitar cualquier esfuerzo físico e intelectual que pueda ocasionar disfunciones en el sistema nervioso. Esto se recomienda especialmente a las señoritas cuya fragilidad mental es proclive a los exabruptos y las manías.

8. La frase que Matilda nunca olvidará: <Las mujeres decentes se bañan todos los días antes de la seis de la mañana, siempre>.

-『Nadie me verá llorar』, p.103

1.2 멕시코 혁명 시대의 숙녀 (La Dama)

30년간의 포르피리오 디아스(Porfirio Díaz)의 독재정치에 대항해 1910년에 멕시코 혁명이 일어난다. 이 혁명에 참여했던 이들은 삶의 터전을 상실한 농업 노동자와 혁명 단원이었다. 그들은 포르피리아토 시대의 의사, 정계 인사들과 같은 기득권층에 대항한다. 포르피리아토 시대의 정숙한 여성은 카스틀로(Cástulo)와의 만남으로 그녀의 반복적인 일상의 규율을 깨버린다. 삼촌 마르코스의 집을 나온 마틸다는 혁명단 La Causa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그녀의 이름은 숙녀(La Dama)이다. 혁명단에서 그녀가 하는 일은 쓰레기 모으기, 커피 준비하기, 정원의 잔디를 자르는 일이었고 디아만티나(Diamantina)가 없어진 후 가끔 그녀 대신 피아노를 치기도 했다. La Causa에서 그녀가 사는 사회의 체제는 바뀌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이전과 다를 바 없었다. 카스틀로는 마틸다가 La Causa에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마틸다는 침묵의 미소를 짓는다. 그녀가 느끼는 멕시코 혁명 이후의 삶도 포르피리아토 시대의 삶과 차이가 없음을 그녀 스스로도 인식한다. 결국 혁명단은 흩어지고 그녀는 카스틀로와 헤어진다.

-Matilda, tú puedes ser útil a La Causa-le dijo.

Por toda respuesta la mujer le sonrió en silencio.

-『Nadie me verá llorar』, p.138

마틸다의 숙녀(La Dama) 생활은 멕시코 혁명이 단순히 정치 체제와 기득권층만 바뀌었을 뿐 제도는 변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그녀는 여전히 가부장제에 속한 여성의 삶을 살아가며 멕시코 혁명은 체제만 바뀌었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전복시키지 못했다. 마틸다가 카스틀로에게 지은 침묵의 미소는 여성을 대하는 사회 깊숙이 박혀있는 불합리함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없이 혁명 이전의 사회와 혁명 이후의 사회 모두 그녀에게 요구하는 여성상은 같을 것이란 것을 보여준다. 인프라와 제도의 불변을 확신한다. 그녀는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을 뿐이다. 그녀에게 카스틀로는, 멕시코 혁명은 현실이 아닌 꿈이었다.

1.3 정신병원의 마틸다

정신병원에서 마틸다는 자신의 주체성을 찾는다. 주체성은 자신을 의식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며 기억하는 행위이다. 마틸다는 정신병원에서 자신의 역사를 풀어낸다. 정신병원에서야 비로소 그녀는 마틸다 부르고스(Matilda Burgos)가 된다. 정신병원은 그녀에게 여성상을 바라지 않는다. 이미 벌써 그녀가 군인들이 요구한 성 접대를 거부한 순간부터 사회는 그녀에게 광기라는 틀을 씌워 사회는 그녀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모순적으로 마틸다는 정신병원에서 그녀의 자유를 누리고 그녀의 주체성을 회복한다. 그녀가 겪었던 이전의 사회는 마틸다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며 감금시켰다. 그러나 정신병원은 그러지 않았다.

소설에서는 의사 올리고체아 (Oligochea)의 불륜과 사진작가 호아킨 (Joaquín)의 마약 중독이 되려 정신병원 환자인 마틸다보다 더 비정상적이게 보인다. 다들 인정하지 않던 마틸다의 비정상이 올리고체아도, 호아킨도 사회가 만들어낸 악마의 속삭임이었음을 인정한다. 그들은 사회가 비정상이었으며, 비정상을 용인한 자신들과는 다르게 마틸다는 사회의 모순된 행태에 대항했음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다. 마틸다는 비로소 자신의 이름 마틸다 부르고스를 되찾는다. 자신의 주체성을, 자신의 자유를 되찾는다.

II. 패배가 아닌 승리자로서의 여성주체

소설은 마틸다가 부당한 일을 당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그녀가 성 접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다는 점,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자신의 광기를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자살했다는 점은 그녀가 사회에 굴복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녀가 사회에 패배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실상은 마틸다가 멕시코 사회에 승리했다.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모순덩어리를 드러내려 했으며, 가부장적 사회가 추구하는 주체성을 잃은 여성상에서부터 탈피하려 하였고, 변하지 않는 제도를 유지해가는 사회를 그녀 스스로가 버렸다. 마틸다는 사회를 거부하고, 사회에 깔린 인식을 거부했으며, 여성의 자유와 주체성을 없애려는 사회의 폭력적인 움직임을 거부했다. 그녀는 사회적 순리에 따라 스스로를 사회에 종속시키지 않았으며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본 세상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한 세상의 부당함에 대항한다. 마틸다는 자신이 행동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그녀의 삶을 살아갔다. 탄생을 제외한 그녀의 삶의 대부분은 그녀의 선택에 따라 움직였으며 마틸다는 비공식적인 역사의 승리자이다. 마틸다는 세 가지 형태의 거부를 통해 사회에 저항한다. 그녀가 행했던 거부는 신체적 거부, 정신적 거부 그리고 제도적 거부로 나눌 수 있다.

마틸다가 극장 파브레가스 (Teatro Fábregas)에 일을 하러 갈 때 군인들은 그녀에게 성 접대를 요구했으나 그녀는 거부한다. 마틸다는 남성이 요구하는 신체에 대한 권리를 그녀 자신에게서 찾았으며 그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 선택권을 스스로에게 부여했다. 이 행동은 마틸다를 사회와 맞지 않는 비순종적인 여성으로 만들었으며 그녀를 감옥으로 보낸다. 의사는 그녀가 사회에 반하는 행동을 한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그녀에게 정신불안증, 조현병과 히스테리등의 질병을 진단한다. 그녀가 한 신체적인 거부의 결과를 통해 사회가 개인의 주체성과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득권층은 그들이 말했던 사회적 위생 논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며, 그들이 정한 규율을 그들 스스로 깬다는 모순점을 드러낸다. 정숙한 여성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하며, 화장해서도 안되고 향수를 뿌려서도 안 된다. 기득권층 남성은 여성에게 "정숙"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마치 정숙한 여성이 가장 일반적이고 정상인 여성인 것처럼 여성들을 세뇌하고 억압했다. 그들은 그들의 입맛에 따라 법을 바꾸었다. 전혀 정숙하지 않은 매춘부, 즉 그들이 말했던 비위생적인 여성들의 성행위를 합법화하였으며 그들이 정한 규율을 그들의 편의에 따라 바꿨다. 기득권 남성은 그들 스스로에게 매우 관대했다. 그들은 여성들의 신체권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여겼다. 마틸다는 부당한 가부장적인 행태와 여성 억압에 대해 직접적으로 거부했다.

사회가 추구하는 여성상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가부장적 규율을 부정하는 것을 사회는 정신적 질병이라 규정했다. 마틸다는 사회가 말하는 정신적 질병인 광기를 인정했다. 사회는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기준을 기득권층 남성이 결정하게 하여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 연약한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기득권층이 여성에게 하는 규제와 억압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기득권층 남성의 합리화는 여성의 자유와 주체성을 상실하게 했으며, 사회와 제도를 이용해 여성들을 억압한다. 마틸다의 정신적 거부, 즉 광기는 가부장제를 부정하며,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억압을 거부한다. 사회가 요구하는 순종적인 여성을 능동적으로 거부한다.

푸코에 따르면, 17세기에서 18세기의 광기는 사회에 반하는 범죄였으며 그들은 감금당했고 처벌받았다. 근대적 광기는 포르피리아토 시대가 정의했던 광기와 같다. 광자들은 사회에 병적인 존재였으며 감금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20세기의 광기, 현대적인 광기는 근대의 광기와 전혀 다른 방향을 걷는다. 현대의 광기는 사회의 불합리성에 대항하는 요소가 되고 수탈당한 사람들이 분출하는 억압에 대한 폭발이다. 더 나아가 광기의 폭발은 혁명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마틸다는 그녀의 광기를 인정했고 그녀 스스로 사회를 거부하겠다는 신호탄을 터뜨린 것이다. 그녀는 사회가 그녀에게 행했던 가부장제의 억압을 벗어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마틸다의 삶이 거쳤던 사회는 두 가지였다. 그녀는 이 모든 사회를 거부했다. 그녀의 세상은 두 번 바뀌었으나 근본적인 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포르피리아토 (Porfiriato) 시대의 제도를 거부하기 위해 마틸다는 마르코스 (Marcos Burgos)의 집을 떠났다. 정숙한 여성 (La Mujer Decente)의 이름을 거부했다. 멕시코 혁명으로 체제가 변하며 자신의 상황도 변할 것이라는 작은 꿈은 부서졌다. 혁명은 그녀에게 숙녀 (La Dama)라는 이름을 주었으며 여전히 전통적인 성 역할을 그녀에게 요구했다. 마틸다는 혁명을 통해 체제가 변하더라도 근본적인 제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숙녀 (La Dama)라는 이름을 버린다. 정신병원에서 그녀는 자기 이름을 찾는다. 그녀는 자신의 주체성을 찾는다. 그녀는 자신의 자유를 되찾는다. 그러나 정신병원에서 관망한 사회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으며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근본은 똑같다. 매음굴인 라 모데르니닷 (La Modernidad)은 엘 프로그레소 (El Progreso)로 이름만 변했을 뿐 본질은 똑같았다. 여전히 기득권층의 모순이 드러나는 공간이었다. 라 카스타네다 (La Castañeda)는 여전히 정신병원으로 기득권층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감금되고 격리되는 장소이다. 여전히 사회는 사회의 위생을 추구하며, 비위생적인 것은 사회의 바깥으로 내몰아버린다.

Esta es la única conversación que entra en los recuerdos de Matilda antes de caer. Es un segundo apenas. Un agujero luminoso. Después no hay ya nada más. Derrame crebral. 7 de Septiembre de 1958. ¿Cómo se convierte uno en una loca?

A su lado, no hay nadie que lamente lo que ha sido, lo que es.

-『Nadie me verá llorar』, p.207

마틸다는 자살한다. 그녀는 사회가 말하는 위생과 비위생의 기준은 기득권층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인 것을 안다. 마틸다는 줄곧 자기 스스로 이러한 사회에서 탈출할 것임을, 자신을 고립시킬 것임을 밝혀왔다. 죽음에 대한 그녀의 선택은 마틸다가 능동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회에 대해 대항하는 행위이다. 원래 외곽에 있던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를, 겉질만 바꾼 사회를 그녀 스스로 거부했다. 마틸다의 자살은 사회를 스스로 버릴 것이라는 그녀의 결심이자 의지이다. 마틸다는 그녀의 죽음까지 자신이 선택한다. 주체성과 자유를 회복한 마틸다는 여성 억압의 사회를 이겨낸 승리자이다.

Ⅲ. 멕시코 여성의 역사: 여성적 글쓰기

『Nadie me verá llorar』는 마틸다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마틸다의 눈물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목은 2가지 의미를 함축하는데, 하나는 마틸다의 눈물이 어떤 역사에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녀가 자신의 눈물을 보이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즉 마틸다식 수행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Nadie me verá llorar』는 멕시코 공식 역사가 침묵해 온 낮은 계급의 여성들의 역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그와 동시에 역사의 침묵에 대해 여성의 주체성을 회복해야 함을 드러낸다.

소설은 마틸다의 삶에서 멕시코 혁명 전후를 걸친 시기를 조명한다. 즉, 그녀의 삶은 포르피리아토 시대, 멕시코 혁명 그리고 혁명 그 이후까지 경험하였으며, 마틸다는 멕시코 역사 중 중요한 사건 속에 가장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그러나 멕시코 공식 역사 속에는 누구도 이 멕시코 혁명에서 직접적으로 겪었던 인물이었을, 마틸다와 같은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없다. 멕시코 역사는 사회의 변두리에 있는 여성 주체에 대해 침묵했다. 당대 사회가 가장 가혹하게 대했던 여성들이 받았을 억압과 억압에 대한 저항을 기록하지 않았다.

『Nadie me verá llorar』는 그러한 여성들의 주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도입한다. 역사 속에 침투했던 남성 중심의 체제에 반하여 이 소설은 '여성적 글쓰기'를 보여준다. 남성의 이야기로 가득한 역사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한다. 오랫동안 남성중심주의 사상이 스며들었던 역사에 대해 비전통적이고 비선형적인 글쓰기를 구현했다. 이러한 글쓰기는 마틸다의 태도와 매우 유사하다. 마틸다는 가부장제의 억압으로부터 사회의 규율을 거부하며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그녀의 주체성을 찾으려 했다. 여성적 글쓰기 또한 이전의 남성 중심이었던 역사를 여성의 시선과 여성의

이야기로 전환하여, 여성의 역사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이 소설은 공식 역사가 침묵해왔던 여성의 이야기를 여성의 언어로 나타내며 여성의 주체성을 회복시키려 했다. 또한, 사회가 침묵해왔던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역사를 다시 쓰는 것 또한 여성적 글쓰기에 해당된다. 공식 역사는 기득권을 쥔 남성들의 눈으로 멕시코 혁명을 본다. 그러나 이 소설은 여성적 글쓰기를 통해 다른 계층, 다른 성별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았으며, 미처 알지 못했던 사회 문제를 도출해내기도 한다. 즉, 이 여성적 글쓰기는 새로운 역사 쓰기로 이어진다.

『Nadie me verá llorar』는 낮은 계층의 여성, 사회의 밖으로 밀려나던 여성의 시선으로 역사에 공식적으로 담겨있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 마틸다의 주체성 회복은 여성적 글쓰기를 통해 역사 속에서 잊혀질 뻔한 여성들의 주체성을 되찾는 것과 같은 길을 걷는다. 특히, 마틸다가 볼 수 있는 멕시코 혁명의 문제가 많았듯이, 사회의 바깥에 있던 여성의 시선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이 바라보는 것보다 멕시코 사회의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의 소수자의 눈을 통해 본 멕시코 사회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것은 Matilda가 그녀의 주체성을 회복하려 한 것과 같이 소외된 여성들의 주체성을 찾는 것이다. 소외된 여성이 쓰는 새 역사는 멕시코 여성들이 역사에서 잃어버렸던 그들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도약이다.

참고문헌

이강혁, 『라틴아메리카역사 다이제스트100』,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8, 348-365

로이스 타인슨, 『비평이론의 모든 것』, 윤동구, 앨피, 2012, 226-236

Jungwon Park, Manicomio y Locura: Revolución dentro de la revolución mexicana en Nadie me verá llorar de Cristina Riveera Garza, 2013, 56-71, Anclajes, 17

Cristina Rivera Garza, 『Nadie me verá llorar』, TusQuets Editores, 2000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 나타난 새로운 남성성의 모색

김형중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I. 서론

『콜레라 시대의 사랑 *El amor en los tiempos del cólera*』는 1985년 출판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Gabriel García Márquez)의 소설로서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이전 작품들과는 달리 마술적 사실주의 혹은 실험적인 글쓰기가 아닌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연애소설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연애 소설들과는 달리 청년 시절의 사랑에 대한 좌절과 긴 기다림 끝에 이루어낸 노년의 사랑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긴 시간을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장 인물들은 19세기 라틴아메리카 소설의 등장인물들과 같은 세대의 인물들이지만 19세기 소설들보다 더 후대의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점을 주목해본다면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 19세기 소설에 대한 패러디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을 포착해낼 수 있다.

19세기 라틴아메리카 연애소설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인 호르헤 이삭스(Jorge Isaacs)의 『마리아 *María*(1867)』는 소설 속 주인공들은 통해서 콜롬비아의 이상적인 젠더를 제시했다. 즉, 19세기의 소설에서 민족국가의 형성을 위해 여성에게 가부장 제도에 대한 순종을 강요했다면, 문명을 상징하는 남성이 되기 위해서는 인종적, 신분적, 직업적 제한을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서 여성 주인공인 페르미나 다사와 그녀와 결혼한 우르비노 박사는 19세기 소설 속 이상적인 젠더를 가진 등장 인물들과 닮아있다. 반면에 19세기 소설에서 제시하는 남성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플로렌티노 아리사는 사랑에서 소외당하고 만다. 하지만 『콜레라 시대의 사랑』은 19세기의 소설과는 달리 우르비노 박사가 아닌 플로렌티노를 주인공으로 선택한다. 이러한 결말은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19세기의 사랑과 젠더 모델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닌, 19세기 소설의 젠더 구도를 패러디하여 20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남성성에 대해 탐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젠더 연구에서는 가부장 제도의 억압을 극복해내고자 하는 여성 주인공을 위주로 진행되어 왔지만, 가부장 제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남성 주인공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아 왔다. 그러한 이유는 대부분의 소설에서 남성 등장인물이 이미 남성성을 가진 전형적인 인물로서 그려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서는 플로렌티노라는 인물을 통해서 사회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남성성에 해당하지 못하는 남성을 주인공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상적 남성으로 젠더화 되지 못하는 남성이 어떻게 소외를 극복해나가고 자신만의 남성성(masculinidad)을 형성해나가는지를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콜레라 시대의 사랑』을 통해서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제시하고 있는 20세기 라틴아메리카에 부합하는 새로운 젠더와 남성성에 대한 모색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19세기 라틴아메리카 소설에 대한 패러디

도리스 소머는 *For Love and Money: Of Potboilers and Precautions*(2001)에서 19세기 라틴아메리카의 연애소설이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이데올로기를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한다. 당시 소설가들은 소설 속 주인공들의 로맨스와 결혼을 통해서 '국가적 가정(national families)'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결합을 도모하고자 했다(Sommer 2001, 383). 이러한 목적을 가진 19세기의 라틴아메리카 소설은 민족국가의 형성을 위한 과정을 담기 위해서 문명과 근대성을 대표하는 남성 주인공이 그와 다른 인종·지역·경제적 배경을 가진 여성 주인공을 결혼을 통해서 문명에 편입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Sommer 2001, 384). 즉, 이러한 소설에서 주인공들의 결혼은 민족국가의 건설과 문명의 승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결혼의 구조는 여성이 남편에게 순순히 복종하는 가부장제를 기반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소설들에서는 가부장제에 따른 전통적인 성 역할을 바탕으로 한 주인공들이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설들은 이상적인 민족국가의 형성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젠더 역시 제시하였다. 소머가 예시로 들은 소설 중 하나인 호르헤 이삭스의 『마리아』에서는 크리오요 엘리트이자 영국에서 의학 공부를 하는 에프라인을 남성 주인공으로 설정하였다. 즉, 이삭스가 제시한 새로운 민족국가인 콜롬비아를 이끌어갈 문명은 바로 의사와 같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크리오요 엘리트계층이었고, 이에 따른 인종적, 직업적 기준을 통해서 콜롬비아를 대표하는 남성성이 정의되었다. 그렇지만 콜롬비아에서 이러한 이상적인 남성성의 기준에서 부합하는 크리오요 엘리트계층의 남성은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민족국가의 이상적 구성원에서 배제된 남성은 소설 속의 로맨스에서 역시 배제되면서 남성성을 박탈당하였다.

반면에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서는 19세기 라틴아메리카 소설들과 같은 시대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주인공으로서 남성성에서 소외되고 사랑을 박탈당한 남성을 제시하고 있다. 『콜레라 시대의 사랑』의 남성 주인공인 플로렌티노 아리사는 사생아 출신이며, 직업 역시 변변치 않은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주인공인 페르미나 다사는 플로렌티노가 아닌 『마리아』 속 에프라인과 닮은 우르비노 박사와 결혼을 하게 되며, 플로렌티노는 남성성을 상실한 채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인물이 된다. 즉, 『콜레라 시대의 사랑』은 19세기의 소설들과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면서도 그 초점을 이상적인 젠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 남성성으로부터 소외된 인물에 맞추고 있다.

벨비아다(Bell-Villada)는 『콜레라 시대의 사랑』을 마르케스적 특징과 19세기 소설의 특징이 합쳐진 작품으로서, 유행 지난 멜로드라마이며 19세기 사실주의적 경향으로의 의도적인 복귀라고 설명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로 과도한 세부묘사, 논증성(discursividad), 전개 구조 등을 제시하였다(Beltrán Almería 1997, 225-226). 하지만 벨트란 알메리아(Beltrán Almería)는 19세기 사실주의로의 전향이라는 벨비아다의 주장에 의문을 표하며 패러디로서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 주목하였고, 이러한 패러디는 19세기 문학 작품 속 요소들이 아이러니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알메리아는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 19세기의 사회적, 문학적 요소들을 패러디함으로서 조소를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노화된 우르비노 박사와 페르미나의 몸에 대한 묘사와, 이와 대비되는 늙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한 제레미아 생타무르를 예시로 들고 있다.(Beltrán Almería 1997, 228-230)

또한 『콜레라 시대의 사랑』은 19세기의 라틴아메리카 소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상적인 민족국가의 형상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소설들에서 구현해내지 못했던 실제 19세기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을 패러디를 통해서 재현해내고 있다. 최병일은 소설의 배경이 19세기 말엽의 해안도시 카르타헤나(Cartagena)인 이유를 만(灣)을 경계로 구도시 지역과 신도시 지역으로 양분된 다른 세상이 공존하는 19세기 콜롬비아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최병일 2001, 403-406). 즉,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마리아』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크리오요 엘리트층이 주도하는 목가적 이상향 뒤에 가려져 있던 '죽음의 늪지'와 같은 민중의 삶을 카르타헤나라는 도시를 통해 대비시키면서 19세기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이러한 공간적 대비를 통해서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은 19세기 크리오요 엘리트층이 제시했던 근대성과 문명의 가치가 허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19세기 소설의 전형적 남성 주인공의 특색을 갖춘 우르비노 박사를 최병일은 근대화의 허구성을 들어내는 인물이라고 분석한다(최병일 2001, 406-407). 우르비노 박사는 계몽주의 사상에 심취하여 조국의 근대화에 헌신적으로 매달리지만, 그의 이상향 건설 계획에서 민중과 그들의 삶은 배제되어 있다(최병일 2001, 406-407).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온 우르비노 박사는 민중을 도외시킨 채 자신의 앵무새한테 프랑스어를 가르치며, 새장을 탈출한 그 앵무새를 쫓다가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다(최병일 2001, 407). 이처럼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우르비노 박사를 통해서 문명을 상징하는 19세기 소설 속 남성 주인공의 실상과 이상적인 남성성의 허상을 보여주면서 19세기 소설을 패러디한 것이다.

또한 여성 주인공인 페르미나와의 결혼생활 역시 19세기 소설가들이 제시했던 민족국가의 바탕이 되는 이상적인 가정과 같이 낭만적이지 않았다. 페르미나는 우르비노 박사의 가족들에게서 질식할 것 같

은 느낌을 받았으며, 버려진 아버지의 집이나 사촌들의 집, 해외 등으로 계속해서 결혼 생활로부터 도피를 시도하였다. 여러 역경을 헤쳐가면서 30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어간 끝에 우르비노 박사 부부는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한 몸과도 같게 되었지만,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이러한 상호 의존이 사랑의 결과인지 편의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 던진다(가르시아 마르케스 2016, 50). 즉,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우르비노 박사 부부를 통해서 19세기 소설가들이 이상적인 젠더의 결합을 통한 '국가적 가정'을 패러디하면서 19세기 소설이 제시했던 민족국가의 현실을 보여준다.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이러한 패러디를 통해서 19세기 라틴아메리카의 소설들에서 제시한 문명과 근대성의 가치가 달성되지 못한 허상에 불과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을 위해서 19세기 소설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상인 플로렌티노 아리사를 남성 주인공을 설정하였으며, 19세기 소설의 허상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즉, 플로렌티노는 달성될 수 없는 이상적인 남성성을 가진 인물이 아닌 20세기 콜롬비아, 더 넓게는 라틴아메리카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남성성을 만들어나가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Ⅲ. 새로운 남성성의 모델로서 “중산계급”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서 플로렌티노는 당시 사회에서 표방하던 남성성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페르미나의 아버지인 로렌소 다사에게 자신의 딸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를 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상적인 남성성에 부합하는 우르비노 박사에게 페르미나를 뺏기고 만다. 젊은 시절의 플로렌티노는 연애편지와 사랑의 시를 쓰면서 페르미나와 연애는 할 수 있었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성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여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페르미나를 잃게 된 플로렌티노는 페르미나에 걸맞은 상대가 되기 위해 명성을 얻고 돈을 벌겠다는 다짐을 하며(가르시아 마르케스 2005, 7), ‘카리브 하천 회사’의 사장인 작은 아버지 레온 12세를 찾아가 일자리를 부탁한다.

플로렌티노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새로운 남성성의 모색 과정으로 볼 수 있다. 19세기 소설 속의 여성성은 문명 혹은 가부장제에 복속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젠더였던 반면에, 남성성의 경우에는 태생적 제한을 설정해두었으며, 일련의 행동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플로렌티노가 우르비노 박사와 같이 이상적 남성성을 가진 인물이 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플로렌티노는 자신만의 새로운 남성성을 모색해나가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로렌티노는 카리브 하천 회사에서 페르미나에게 걸맞은 남성이 되기 위한 남성성 획득의 여정을 시작한다.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서 카리브 하천 회사는 새로운 남성성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플로렌티노의 아버지인 피오 5세와 레온 12세를 포함한 그의 형제들은 모두 어머니만 같은 사생아 출신들이지만, 자수성가하여 자신들이 원했던 것들을 달성한 인물들이다. 즉, 의사이자 시민의 영웅이었던 우르비노 박사의 아버지와 달리 플로렌티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역시도 19세기 라틴아메리카 사회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남성성에 해당하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해운 사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길을 개척해나갔다. 플로렌티노 역시도 카리브 하천 회사를 통해서 자수성가를 이루게 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남성성을 형성해나간다. 하지만 회사에 취직하는 것만을 통해서 젠더화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단지 남성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무대였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플로렌티노는 사회가 제시하는 달성할 수 없는 남성성이 아닌 자신만의 새로운 남성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엘리트층이 규정 짓은 젠더화의 과정이 아닌 자기 자신의 특성을 이용해야만 했다.

카리브 하천 회사에 입사하기 전의 플로렌티노가 가지고 있던 그의 특성은 사랑의 시를 낭송하고 연애편지를 쓰는 것에 열중하면서 사랑에 전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플로렌티노가 가진 사랑에 대한 열망은 그가 동네 아가씨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플로렌티노의 특성은 로렌소 다사를 만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 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않았다. 즉, 그것은 남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남성성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실의 서기로써 일하면서 공식 문서를 연애편지처럼 쓰는 플로렌티노는 곧 좌천되어 부두의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게 된다. 하지만 플로렌티노가 가진 사랑의 야망, 즉 페르미나와 어울리는 남성이 되겠다는 결심은 그에게 결단력과 추진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것으로 하여금 플로렌티노는 레온 12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다.

30년간의 회사 생활을 거치면서 한 단계씩 승진해나간 플로렌티노는 카리브 하천 회사의 부회장이 되고, 명예와 재산을 얻었지만, 페르미나를 되찾기 위해서는 우르비노 박사의 죽음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는 처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플로렌티노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요일의 여자들’¹⁾을 찾아다니면서 수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즐겨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렌티노의 사랑의 목표는 페르미나가 유일하였다. 플로렌티노는 자신의 과거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을 페르미나와의 덧없는 사랑으로 생각했으며, 그녀와 관계된 것만으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가르시아 마르케스 2005, 103).

이처럼 플로렌티노에게 있어서 페르미나에 대한 사랑만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의 모든 노력이 이를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결국 플로렌티노가 새롭게 모색한 남성성은 사회가 요구하는 젠더화의 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특유의 사랑에 대한 열망을 통해서 남성성을 발현해나가는 것이었다. ‘일요일의 여자들’과 여성 편력을 즐겼던 플로렌티노는 우르비노 박사 사후 미망인이 된 페르미나에게 “당신을 위해 동정을 지켜왔던 것이오”(가르시아 마르케스 2005, 315)라고 고백한다. 이것은 페르미나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그녀에 대한 사랑의 열망이 5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 집은 페르미나 다사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었기에 그녀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집이었다. 그래서 플로렌티노 아리사는 다른 사랑으로 그의 집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가장 수확이 좋았던 시절에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편을 택했다(가르시아 마르케스 2005, 185).

플로렌티노는 미망인이 된 페르미나를 다시 얻기 위해서 그녀에게 답장 없는 사랑의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며, 결국 그녀의 마음이 움직이게 만든다. 플로렌티노의 사랑에 대한 열망은 플로렌티노를 페르미나에게 걸맞은 상대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했음은 물론이고, 미망인이 된 페르미나의 마음을 녹여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서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남성성은 19세기 소설의 가부장적이고 유럽의 문물을 배워온 엘리트 남성이 아닌 자신의 특성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나갈 수 있으며, 자수성가하여 중산계급에 도달한 남성인 것이다.

잉에 슈테판(Inge Stephan)이 주장한 ‘젠더 행하기(doin gender)’에서는 젠더를 규범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이 아닌 행위자들에 의해 행위 되고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한다(배은경 2004, 88). 그렇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형성된 젠더를 부정하지는 않으며, 다만 이러한 젠더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심리적 강박과 의지에 의한 변화가 함께 작동한다고 분석한다(배은경 2004, 89).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서도 19세기 소설에서 제시했던 이상적인 젠더의 규범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페르미나와 결혼을 한 인물은 우르비노 박사였다. 하지만 이상적인 젠더에 부합하지 않는 플로렌티노는 자신의 의지와 사랑에 대한 열망을 통해서 카리브 하천 회사의 이사회 회장이자 사장이 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자수성가를 이룩한 중산계급이란 새로운 남성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중산계급 남성성의 창조를 통한 20세기 국민 서사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다.

더 나아가서 마르케스는 20세기 이후 죽어버리는 우르비노 박사를 통해서 19세기 소설이 상상했던 크리요 엘리트 중심의 이상적 민족국가의 소멸을 보여주며, 20세기에는 자신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수성가를 이룩한 플로렌티노와 같은 민족자본가 혹은 중산계급을 국가를 이끌어갈 남성으로 재상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수성가의 가능성을 플로렌티노와 함께 카리브 하천 회사를 요직을 거치며 회사의

1) 플로렌티노는 여러 여성들은 유혹하였지만, 평일에는 사장으로써 평범하게 지내다가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에 유혹한 여성들을 사무실로 데려와서 성관계를 즐겼다. 그렇기 때문에 플로렌티노는 이들을 일요일의 여자들이라고 불렀다.

성장에 기여한 레오나 카시아니와 같은 인물을 통해서 여성에게도 열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서 19세기의 규격화된 젠더에서 탈피하여 남녀 모두에게 새로운 젠더 모색의 가능성을 허용하고 있으며, 자신만의 젠더화의 과정을 거쳐서 중산계급에 안착한 인물을 20세기 콜롬비아와 라틴아메리카를 이끌어갈 주체로 제시하고 있다.

IV. 결론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백년의 고독 *Cien años de soledad*(1967)』에서 마술적 사실주의를 통해 역사와 신화,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허물어서 라틴아메리카의 진정한 현실을 보여주고 했으며, 이는 곧 라틴아메리카 붐 소설을 대표하는 특징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콜레라 시대의 사랑』은 이전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작품들과는 달리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해나가고, 실험적인 글쓰기에서 벗어나 읽기 쉬운 글쓰기를 사용하였기에 붐 세대의 소설보다는 포스트 붐에 가까운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서도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콜레라 시대의 사랑』은 19세기 라틴아메리카의 소설을 패러디하면서 20세기 라틴아메리카가 추구해야 할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플로렌티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19세기 소설 속에서 제시되어 온 이상적 형태의 젠더들을 비판하고 스스로가 개척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젠더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유럽 문화에 경도되어 있고 현실을 외면하는 허상적인 남성을 끌어내리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자수성가를 이룬 남성을 라틴아메리카를 이끌어갈 주체로 내세우고 있다.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서 사랑의 열망으로 회사의 사장에까지 오른 플로렌티노는 19세기의 크리오요 엘리트계층을 대표하는 우르비노 박사와 대비되어 새롭게 떠오르는 중산계급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20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젠더상이 아니라 누구나 달성할 수 있는 자신만의 젠더화의 가능성이다. 우르비노 박사의 지휘와 신분은 사실상 그의 아버지에게서 이어받은 것일 뿐, 그가 성취해낸 것이 아니다. 하지만 플로렌티노는 사랑에 대한 열망이라는 특성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신만의 새로운 남성성을 성취해냈다. 따라서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콜레라 시대의 사랑』을 통해서 사회가 규정해놓은 젠더가 아닌 자신에 맞게 새롭게 탐색된 젠더를 기반으로 사회를 구성해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능성이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참고문헌

-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2016), 『콜레라 시대의 사랑 1』, 송병선 옮김, 민음사.
 _____(2005), 『콜레라 시대의 사랑 2』, 송병선 옮김, 민음사.
 배은경(2004), 「사회 분석 범주로서의 젠더 개념과 페미니스트 문화 연구 개념사적 접근」, 『페미니즘 연구』, 4(1), pp.55-100.
 최병일(2001), 「조국에 대한 사모곡 - 「콜레라 시대의 사랑」」, 『라틴아메리카연구』, 14(2), pp.399-427.
 Beltrán Almería, Luis(1997), "La parodia en "El amor en los tiempos del colera"", *Revista de Crítica Literaria Latinoamericana*, No.46, pp.225-234.
 Sommer, Doris(2001), "For Love and Money: Of Potboilers and Precautions", *PMLA*, Vol.116, No.2, pp.380-391.

La reinterpretación de Malinche desde la perspectiva moderna

이미경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17)

I. Introducción

La Malinche, conocida como Doña Marina, Malinali y Malintzin, es considerada como una de las figuras más importantes durante la época de la conquista de México. Hasta hoy en día, existen diferentes críticas y valoraciones acerca de Malinche, ya que por un lado la juzga como símbolo de "traición nacional", es decir, una persona maligna que ha traicionado a su país, mientras que por otro lado la valora como "la madre de la nación mexicana" y un ídolo. Esta tensa oposición entre la gente se sigue manteniendo todavía en Hispanoamérica, sobre todo en México. Sin embargo, la pura verdad es que fue una mujer indispensable en la conquista de México. Según Juana Armanda Alegría, la Malinche fue la única mujer significativa durante la conquista, y Bernal Díaz del Castillo, quien fue un soldado que ha luchado con Cortés y a la vez un escritor que escribió la célebre obra "*Historia verdadera de la conquista de Nueva España*", describió a Malinche en su obra, justificando su importancia, belleza, inteligencia, heroísmo y fuerza que conllevaba. Sin embargo, desde otro punto de vista, muchos escritores, incluido Juana Inés de la Cruz, quien es una escritora más importante durante la época colonial, no habían escrito ninguna obra o texto sobre la Malinche.

No obstante, la escritora Laura Esquivel, que es muy familiarizada con los lectores por su obra "*Como agua para chocolate*", ha escrito su nueva obra sobre "Malinche". Conocida en todo el mundo como "traidora de la nación", la Malinche es reinterpretada por Laura Esquivel, como una mujer utilizada por el imperialismo y apedreada por el nacionalismo. De esta manera, el presente estudio tiene como objetivo buscar y reinterpretar la actuación que conllevaba la Malinche, visto desde la perspectiva moderna, en la que incluye el planteamiento de Laura Esquivel sobre dos temas esenciales : la tierra mexicana y la condición femenina. Es verdad que no es posible tomar una valoración concreta y definitiva acerca de Malinche, pero en el presente estudio intentaré realizar un reestudio sobre el aspecto ignorado y cubierto y la curiosidad a través de la explicación del autor desde una perspectiva moderna.

II. Contexto principal

2.1 La nueva novela histórica Hispanoamericana

La nueva novela histórica, como se sabe acertadamente, es una reelaboración del género novela histórica que surge en el contexto de las vanguardias latinoamericanas. Es aquella que aún siendo una obra de ficción, recrea un periodo histórico superiormente lejano y los personajes y los acontecimientos no ficticios forman parte de la obra.

El origen de esta nueva novela histórica latinoamericana es fundamentado en la novela histórica del siglo XIX, pero no está fondeado en el romanticismo, ni tampoco busca una identidad nacional,

pero trata de reconocer los errores del pasado para entender el presente. Se manifiesta como una de las vertientes de la narrativa del Postboom y comienza a tomar fuerza en 1950, durante la época de Alejo Carpentier. Desempeña un papel importante, sobre la reconstrucción de caracteres y circunstancias. Desde entonces, la novela histórica comenzó a considerarse un género tan relevante como la historia misma, en tanto supone que relata lo que calla este último.

En el siglo XX, en la década de los ochenta, la novela histórica latinoamericana denuncia los profundos traumas sociales e hipocresías que se han reflejado en cada país, pretendiendo mirar la historia desde otro punto de vista.

Una de las características de la nueva novela histórica latinoamericana es que ha sido influida por la novela histórica norteamericana, nacido en el siglo XIX. Otra característica es que recrea la realidad de un determinado hecho o suceso histórico, pero con una mirada crítica. Además, recupera la oportunidad personal, es decir, las vivencias que los personajes históricos que no hayan tenido la oportunidad de figurar en la historia oficial. Se caracteriza por traspasar al pasado desde una nueva perspectiva, y en ocasiones lanza cuestiones sobre lo que ha dicho la historia con respecto a determinados hechos o personajes. Asimismo, elabora una parodia de los sucesos y personajes históricos.

Entre los algunos autores representativos, están Alejo Capentier, Mario Vargas Llosa, Mercedes Valdivieso, Elena Poniatowska, etc.

2.2 Las características de las obras de Laura Esquivel

Las obras de Laura Esquivel, junto a García Márquez e Isabel Allende, es considerada una de las mejores escritoras que tratan el "realismo mágico" y la "novela negra", que son las características de la literatura latinoamericana. En particular, es muy apreciable que esté constantemente atestiguando no sólo la literatura latina tradicional, sino también nueva forma de escribir que es discrepante de la literatura ya existente. Se puede decir que la expresión de realismo mágico se trata de combinar lo cotidiano del día con lo maravilloso de una aventura, se engloban lo mitológico y lo real, la fantasía junto con alguna problema socio-política del contexto. Aunque en su obra Malinche ha empleado el período de la conquista mexicana como el fondo histórico realista, implica una técnica que fluye en el tiempo en la que la realidad se describe como un sueño o un relato misterioso no registrado en la historia real, como la naturaleza, Dios, la madre de la tierra o la fantasía que impregnan en la literatura latina tradicional. De esta manera, en la obra aparecen algunos elementos fundamentales para reconocer el realismo mágico. Uno de ellos es la "fe" que mueve a los personajes, convirtiéndola en uno de los elementos más importantes de esta corriente literaria. En este orden de ideas, se puede considerar la gran confianza y fe que tiene Malinche en Quetzalcóatl, creyendo que volvería a su pueblo para salvar los ciudadanos y castigar a Moctezuma. Otro elemento a tener en cuenta es el mito. Los mitos y las leyendas propios de la colectividad donde se desarrolla la historia, es posible ser un factor añadido que ayuda a dar forma al argumento. La obra armonizó con el gusto peculiar del artista y recibió una gran atracción de todo el mundo. Además, su último trabajo 'Malinche' cita 'códex', un elemento pictórico que el antiguo Mejica expresó su magnífica historia con imágenes poéticas, y la manera de escribir y expresar a través de símbolos. Además, mediante su toque peculiar expresa el amor y la búsqueda personal de las mujeres.

III. La reinterpretación de *Malinche* desde la perspectiva moderna.

Hasta ahora se ha realizado, y hoy en día todavía están realizando vigorosamente muchos estudios sobre Malinche. Es verdad que existen muchas valoraciones negativas tanto como positivas, pero esta confrontación tensa todavía está en proceso de controversia. Entre ellos, según Octavio Paz en *El laberinto de soledad*, describe a Malinche como símbolo de una indígena caída y una mujer sufriente por haber desobedecido las reglas de las indígenas y Carlos Fuentes en su novela *la muerte de Artemio Cruz*, considera a Malinche como una chingada que representa el origen inmoral y deshonorada de los mexicanos.

Si nos fijamos en las evaluaciones negativas, el enfoque principal es que se centra en la alteridad como "mujer", no su habilidad lingüística o sus actividades de interpretación y se puede observar que están centrados en la ideología nacionalista de la sociedad androcéntrica. Para los españoles e indígenas que dejaron registros al inicio de la conquista, la Malinche fue el centro de respeto con dignidad y habilidad. Sin embargo, mediante el proceso de la Revolución de México, la Malinche fue grabada como una expresión negativa, la Chingada. Chingada es la crítica del varón indígena sobre la mujer indígena que no ha sido posible protegerse a sí misma del varón conquistador y a la vez, crítica del hijo indígena por la madre que dio a luz a los mestizos. De hecho, a pesar de la existencia de mujeres indígenas que dieron a luz niños mestizos con gobernantes españoles antes de la Malinche, ésta todavía existe en la sociedad como una vergonzosa "madre de mestizaje".¹⁾

Para añadir, Paz había mencionado a Malinche en su obra *El laberinto de Soledad* de la siguiente manera :

Si la Chingada es una representación de la Madre violada, no me parece forzado asociarla a la Conquista, que fue también una violación, no solamente en el sentido histórico, sino en la carne misma de las indias [...] Doña Marina se ha convertido en una figura que representa a las indias, fascinadas, violadas o seducidas por los españoles.²⁾

En cuanto a este argumento de Paz, la Chingada simboliza la violación de un pueblo entero y la Malinche se vuelve la personificación de la misma³⁾. Esto quiere decir que Paz describe a Malinche como un arquetipo, explicando sobre el término "malinchista", que significa tener preferencia a lo extranjero, consumir productos internacionales en lugar de productos nacionales. De esta manera, plantea la idea de que Malinche ha traicionado a México. Así según la ideología de Paz, la Malinche se expresó en México como alguien que le gusta las cosas extranjeras por haber sido violada por los españoles, pero a la vez, mostró una postura de rechazo en el intento de escapar de los españoles. Finalmente, aceptó todo lo que le ha pasado y adquiere una postura de asentimiento. De esta manera, se podría decir que conlleva una ejecución de magnanimidad.

1) 박소영, 「식민지 여성 통역사: 말린체와 배정자」, 『통번역학연구』 19집,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5, p.4

2) Octavio Paz, *El laberinto de la soledad*, Fondo De Cultura Económica, 2000, p. 94

3) Hanna Söderlund, *Identidad femenina a través de la representación de "La Malinche"* en *El laberinto de la soledad* de Octavio Paz, 2018, p. 22

Por otro lado, Malinche, quien fue duramente criticada por los hombres como una traidora de la nación en el proceso del establecimiento de estado-nación en México, ha sido reevaluada positivamente por activistas feministas en los últimos años. La razón está en que existen registros históricos de sus actividades y circunstancias como intérprete de Cortés.

Recientemente, los investigadores chicanos han reinterpretado el papel que ha desempeñado Malinche durante el proceso de la conquista de la historia mexicana. Para los chicanos, especialmente las chicanas que han contemplado su identidad en la sociedad estadounidense, Malinche se ha convertido en un centro de nuevo interés. Esto se debe a que la Malinche simboliza a una persona que se adaptó precariamente a lo español. De esta manera, la situación de Malinche debió representar la situación de los chicanos. Los chicanos viven principalmente en la periferia de la sociedad estadounidense en una tradición mexicana de raza mixta. Malinche, se convirtió en un modelo de cuán bien los chicanos se adaptan a la sociedad estadounidense y viven de una forma independiente. Por eso, se puede decir que Malinche es como la madre de los chicanos. Los investigadores chicanos consideraron a Malinche no como una traidora, sino como una mujer sacrificada a la cultura patriarcal. Para estos investigadores, esta indígena era una mujer inteligente y fuerte que tenía un talento lingüístico y que fue pionera activa en su destino.

Esta postura fue la revisión de la interpretación ya existente centrada en lo androcéntrico. Además, las chicanas evaluaron a Malinche como un punto de encuentro entre dos mundos, representada como el centro de la formación de una civilización multirracial y multicultural. De esta manera, Malinche no es una "traidora" mexicana, sino una madre fundadora mexicana multirracial.⁴⁾

Como lo observado, existen inmensas valoraciones acerca del personaje histórico Malinche. Entonces, aparte de todas estas evaluaciones, ¿cuál es el desempeño que conserva Malinche? Como respuesta a esta pregunta, podríamos decir cuidadosamente que conserva una ejecución de magnanimidad. Gran parte de América Latina tiene experiencia en el brutal dominio colonial español. Vivir como mujer en una colonia así significa estar expuesta a una doble y triple explotación y opresión. 'Malinche' fue protagonista de la obra, que supo escapar de la esclavitud que se encontraba en el proceso de conquista de Azteca. Con sus asombrosas dotes de interpretación, se convirtió en una "herencia" para Cortés y a la vez "esclava" y "lengua" del conquistador. Es verdad que ayudó a Cortés en su conquista de México, sin embargo, debe ser valorado el papel que ha desempeñado como intermediario entre las culturas española e indígena.

Fue una mujer valiente que luchó ferozmente para lograr su libertad, encontrar el verdadero valor de su vida como mujer y lo podemos observar bien si nos adentramos más profundo en la vida de Malinche, reconstruida a partir de estos registros históricos de Laura Esquivel.

Existen críticas de que Malinche no es una feminista debido a que obtuvo la ayuda de Cortés. En cuanto a esta cuestión, se podría interpretar a lo contrario, que fue ella la que se aprovechó del poder de los conquistadores. Visto desde la perspectiva moderna, es considerable que Malinche ha intentado cambiar el rol que se ha asignado en el pasado a la mujer, actuando valientemente para conseguir la libertad. Hasta entonces ninguna mujer ha podido intentar conseguir la libertad, ya que

4) 김윤경, 「코르테스의 통역사, 말린체: '민족의 반역자'인가 '건국의 어머니'인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1집,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SNUILAS) p. 14

eran esclavas y la mayoría tenía un carácter admisible. Sin embargo, Malinche, conociendo las culturas indígenas, creencias religiosas y dinámicas políticas de los pueblos indígenas mexicanos, el poder de la "intérprete" le hizo pensar que ella misma era la única salida a la libertad que soñaba. Además, fue la mediadora que conectó la cultura española y la indígena a través del idioma, y al mismo tiempo dio a luz al hijo de Cortés, Martín, por lo que se convirtió en la primera madre simbólica del mestizo, y se consagró como el centro de la cultura multirracial latinoamericana.

IV. Conclusión

No cabe duda de que la historia de México está llena de ejemplos de mujeres emprendedoras que han sido destacados en la política, deportes, artistas, etc. Desde que se ha emergido en la sociedad el movimiento feminista y la lucha por conseguir los derechos de las mujeres, varias escritoras contemporáneas han roto barreras dando más profundidad a sus protagonistas femeninas, y una de ellas es Laura Esquivel.

Considerando su situación en la que no tuvo más remedio que cooperar con Cortés y la relación de entonces entre las tribus circundantes de manera integral, la etiqueta de "la mujer que traicionó a su nación", nos hace pensar que es un término injusto. No es deseable verla simplemente desde una mirada negativa. ¿Se podría decir que Malinche traicionó a su país solamente porque haya ayudado a destruir Azteca? Para añadir, podemos plantear la pregunta de qué tipo de "espíritu patriótico" podríamos esperar en una sociedad endocéntrica que trata a las mujeres como un "objeto" y se la regala a los invasores. Cortés también ha usado a Malinche como una herramienta útil solamente para conseguir su deseo de "conquista". Como se muestra en la obra, Malinche sabía que Cortés no era el misionero de Quetzalcóatl que tanto había estado esperando, pero los ayudó y luchó por su libertad, pensando y discrepando cientos de veces si lo que estaba haciendo estaba bien. Cuando Tenochtitlán se había destruido, se acusó a sí mismo pensando de que todo era por su culpa, y en esa postura podemos ver y reinterpretar su rostro humano y comprender a la Malinche debidamente. Aunque todavía no es manifestado como una buena imagen para muchos mexicanos, ya es la hora de cambiar la forma de evaluar a la Malinche, fundamentado en los estudios que están realizando sobre esta mujer. Malinche soñaba con mejorar la vida de las mujeres oprimidas y explotadas en la sociedad mexicana y vivió la vida de una mujer con un espíritu integrador por la libertad, con base a la filosofía tribal y la gran enseñanza que le ha concedido su abuela. La Malinche, era una mujer que tenía una fuerte creencia de que "las mujeres siempre nacen de nuevo" y confiaba en los roles y valores de las mujeres y las madres durante toda su vida. Laura Esquivel ha defendido a la Malinche y esta intención de la autora se establece en el título. Hay que centrar en la verdadera vida de Malinche desde una perspectiva más abierta y recordar el grito de Malinche, una intérprete indígena del conquistador de México que ha estado en el centro de la polémica hasta el día de hoy. Debe ser restaurado y reinterpretado como un personaje histórico, no como un personaje mítico.

V. Bibliografía

김윤경, 「코르테스의 통역사, 말린체: '민족의 반역자'인가 '건국의 어머니'인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1집,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SNUILAS)

박소영, 「식민지 여성 통역사: 말린체와 배정자」, 『통번역학연구』 19집,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Esquivel Laura, Malinche, Atria books, 2006

Paz Octavio, El laberinto de la soledad, Fondo De Cultura Económica, 2000

Söderlund Hanna, Identidad femenina a través de la representación de "La Malinche" en El laberinto de la soledad de Octavio Paz, 2018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과《Cambio de armas》 : 여성의 몸을 통해 드러나는 이중적 위계 구조

김지선 (경희대학교 석사과정)

1. 《Cambio de armas》와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

가르가요(Gargallo 2007)는 《Feminismo nuestro-americano》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젠더투쟁과 여성해방을 이해하려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지정학적 특징과 역사적 특징을 잘 살펴보고, 그 구체성들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¹⁾ 이는 라틴아메리카의 페미니즘이 기존의 서구 페미니즘과는 차별성을 갖는다는 것으로, 라틴아메리카의 페미니즘은 여성을 개인으로서의 존재로 접근하고, 개인의 서사에 주목하는 서구 페미니즘과 달리, 여성 개인의 서사가 라틴아메리카의 국가, 사회, 정체성과의 연결고리 하에 존재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다시 말해,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에서는 개인의 서사가 여전히 정치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프레드릭 제임슨 (Fredric Jameson)이 「다국적 자본주의 시대의 제 3세계 문학」²⁾에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 3세계의 모든 텍스트는 필연적으로 내셔널 알레고리 속에서 생산되고,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 작가들은 여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제3세계에 속해있기 때문에, 그 텍스트 역시도 상황적 인식(situational Consciousness)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루이사 발렌수엘라(Luisa Valenzuela)는 그녀 자신이 말했듯, ³⁾4) 그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는 작가로, 그녀는 197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 비평에서 주목받으며, “섹슈얼리티와 젠더의 관계에 내재한 권력 구조와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통찰이 아르헨티나 정치 현실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결합한다”라는 평을 받는다.

같은 맥락에서, 루이사 발렌수엘라의 『무기의 변화 *Cambio de armas*』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여러 방식으로 연구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여성의 몸을 재해석했다고 본 것과 프랑스 정신분석학적 여성주의자 식수(Hélène Cixous)의 페미니즘적 글쓰기⁵⁾⁶⁾의 가능성을 지닌다는 연구가 있다. 이처럼, 위 소설은 페미니즘이 공통으로 공유하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여성 억압’을 밝히는데 유용한 텍스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말한 제 3세계의 상황적 인식(situational Consciousness)으로부터 발렌수엘라의 텍스트는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의 독특함으로도 읽어낼 수 있다. 특히, 『무기의 변화 *Cambio de armas*』는 텍스트 내부적으로는 아르헨티나의 독재 시기 - 추악한 전쟁(Guerra Sucia, 1976 -1983)⁷⁾을 배경으로, 또 외부적으로는 아르헨티나 독재 이후 문학

- 1) 강경희, 「라틴아메리카 제2기 여성운동의 특징: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확대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6집 3호, 2008
- 2) Jameson, Fredric, *Third-World Literature in the Era of Multinational Capitalism*, Duke University Press, Social Text, No. 15 (Autumn, 1986), pp. 65-88
- 3) 루이사 발렌수엘라는 Elizabeth Mehren과의 인터뷰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작가는 소설을 통해 정치와 결부되는 공통의 경험을 겪는다며, 이는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현실이 자신들의 생활 자체, 즉 삶과 죽음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녀에 따르면, 이 과정은 처음 소설을 쓰는 동시에 의도치 않게 진행되나, 조금씩 깊게 빠져든다며, 그녀의 소설은 정치적 현실과 분리해 바라볼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 4) Gruia, Ioana. “*Cambio de armas*” de Luisa Valenzuela a la luz del pensamiento de Hélène Cixous y de los estudios del trauma, Rilce. Revista de Filología Hispánica, 2017-11, Vol.34 (1), p.206
- 5) 엘렌 식수(Hélène Cixous)는 가장 대표적인 심리 억압의 현장이자, 해방 가능성 탐색의 장이 바로 ‘언어’라며, 여성 억압의 대안은 ‘여성 스스로 자신의 원천(본질)이 되는 것’ 이른바 ‘여성적 글쓰기(escritura fenemina)’를 통해 구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 6) 로이스 타이슨, 「여성주의 비평」, 『비평 이론의 모든 것』, 서울 : 엘피, 2012
- 7) 후안 도밍고 페론 사망 이후 혼란 상태는 국가 안보를 지키겠다는 명분 하에, 군부 독재를 허락하게 되고, 당시 집권했던 군부 독재 세력은 아르헨티나의 혼란 상황을 공권력으로 진압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

(Pos-Distadura)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아르헨티나의 국가적 트라우마를 담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발렌수엘라가 그려내는 위계 구조는 이중적으로 읽을 수 있다. 즉, 작품 속 위계 구조는 여성을 향한 가부장적 남성 권위인 동시에, 군부 독재의 폭력적 권위를 지적한다. 그리고 이는 '여성의 몸'에 남겨진 감각적 기억과 상흔에 의존하여 구체화 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작품에 그 자체로 드러나는 가부장적 남성 권력과 여성 억압의 현장을 살펴본 후, 이러한 여성의 이미지가 어떻게 트라우마를 가진 국가와 연결되는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또한, 푸코의 관점에서, 개인과 국가가 공통의 배경을 공유하며, 트라우마의 형태로 남겨진 공동의 고통이 '여성의 신체'를 통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며, 그 '신체'가 암시하는 아르헨티나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그리고는, 작가가 제목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무기의 변화'가 무엇을 말하는지,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정리할 것이다.

2. 남근 중심주의와 여성 억압

2.1. 여성의 위상

앞서 말했듯, 『무기의 변화』는 라틴아메리카 가부장제 권력과 폭력에 노출된 여성의 몸을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관찰하고 있다. 소설 속 등장하는 인물은 크게 3명으로, 여성 주인공 라우라, 그의 남편으로 보이는 로케 그리고 가정부 마르티나다. 주인공 라우라는 알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기억을 잃은 인물로, 소설의 내용에 따르면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은 마치 스스로를 보호하듯 내면으로 침잠한 채, 차단되어 있다." 소설은 그녀의 기억이 감각적으로 되살아나는 과정을 그려내며, 트라우마가 된 사건의 경위를 좇는다. 자신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그녀는, 알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남성(로케)과 남성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 (동료, 마르티나 등)에 의존해, 세상에 이름을 붙여나간다. 그러나, 다음 장면은 그녀가 남편의 이름 '로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남자가 있다. 생각나는 대로 아무 이름이나 붙여도 되는 그, 그 사람이. 이름이야 어떻든 상관없다. 그가 집에 있을 때는 우고, 세바스티안, 이그나시오, 알프레도 등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다 대답하니까. 그는 한 손을 그녀의 어깨, 팔다리로 차츰 부드럽게 뺨어가면서 그녀를 달랠 때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만 집에 들르는 듯하다.

그녀의 시선에서 남성은 "후안, 마리오, 알베르토, 페드로, 이그나시오"등 "무한한 이름"을 가진 동시에, "이름 없는" 존재이다. "누구이건 항상 그런 식"인 남편이기에, 그의 이름은 그 어떤 것이든 중요하지 않다. 이는 남성 주인공이 단지 한 명의 남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남성 일반을 상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성 주인공은 타인이 자신의 이름 '라우라'를 부를 때는 응답의 몸짓을 보내나, 정작 스스로는 자신을 "익명의 인물"이라고 인식한다. 이는 타자, 특히 남성의 시선으로부터 규정되는 여성의 위상을 지적하는 동시에, 역사적 상황으로부터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된 일반 군중 모두를 상징한다.⁸⁾ 한편, 텍스트 속 여성은 남성의 시선에서 "달랠 필요가 있는" 갇난아기의 위상을 지닌다. 이는 남성 주인공이 사회의 남성 일반을 이야기한다는 것과 더불어,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종속된 위상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소설 속 남자 주인공의 위상은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가부장적인 권력을 상징한다.

2.2. 완전한 대상화

했고, 그 안에는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 이에 따라, '추악한 전쟁'은 군부 독재 시기 (1976-1983)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되었던 국가 테러리즘을 일컫는 것으로, 이로부터 아르헨티나 국민 모두는 "피해자이자 가해자로서의 기억", "늘 누군가가 쫓고 있고, 쫓기는 듯한 고통의 기억" - 독재 이후 트라우마라는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8) 그녀의 소설에서 군중은 자주 '익명'의 존재로 등장하고, 정치적 혼란 속 폭력을 감내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문학과 페미니즘』에서 팸 모리스는 “여성들은 끊임없이 남성들에 의해 잘못 읽히고 있다”라며 남성적 시선을 문제 삼는다. 그녀에 따르면, 여성은 이미 항상 남성적인 사회/공간에서 남성적 시선에 완전히 대상화된 존재이며, 이로써 여성은 지배/통제 가능한 것이 된다.⁹⁾ 소설 속 여성 주인공 라우라와 로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남성/로케의 공간 – 집에서 남성 주인공의 시선을 대변하는 두 사내 (일과 이)와 마르티나의 감시 안에 있다. 그러나, 모든 시선은 여성을 기만한 채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그녀는 그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은 감각 할 수 있으나, 실체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여성의 대상화는 문 열쇠, 심지어는 밖을 볼 수 있는 창문 손잡이도 없이 남성의 공간에 완전히 갇혀있다. 그리고 이 창문 손잡이/ 열쇠는 작품 속에서 무기의 이미지와 중첩되며, 여성이 시선에 완전한 대상/타자가 된 채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2.3. 남근에 의한 폭력

한편, 작품 속 남자 주인공은 쿠데타의 상황 속에서 “대령님”이라고 불리며,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와 폭력성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이것 외에도 그가 가진 도시적인 집과 분위기, 권위적인 말투, 또 항상 붙어 그의 명령을 따르는 두 사내 (일과 이)를 보았을 때, 그는 사회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다수의 사람 앞에서는 교양있는 태도로 여성(라우라)을 대하는 듯 보이나, 둘만이 있는 공간에는 폭력적이고 감정적인 행동과 언행을 일삼는다. 그러나, 남성의 폭력성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곳은 그들의 침실로, 성행위를 하는 남성의 태도는 여성에 대한 지배 관계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독특한 점은 그의 폭력적 행위가 성행위와 남근을 통해 형상화된다는 것이다.

그는 출입문 정면에 있는 소파에 그녀를 기대게 하고, 자기도 말없이 옷을 벗는다. 다른 사람의 눈을 위한 게 분명한 무언의 의식이다. 갑자기 벌거벗은 그는 소파를 뒤로하고 문으로 걸어가서 문구멍의 덮개(네모난 청동 덮개)를 올린 후, 그 상태로 놔둔다. (...) 문구멍을 등지기 싫다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하게 발기한 성기로 정면에서 문구멍을 조준하고 싶은 것처럼. 그녀는 문구멍의 반대쪽을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의 존재를 느끼고, 심지어 그들의 냄새까지 맡을 수 있을 것 같다. ‘일’과 ‘이’는 눈을 문구멍에 바짝 붙인 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고 마른 침을 삼키며 그들을 바라본다. 이제 그는 거무스름한 성기를 내 두르면서 천천히 다가간다. 그녀는 궁지에 몰린 동물처럼 다리를 모으고 머리를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채 소파의 한 모퉁이에 웅크리고 있지만 어쩌면 궁지에 몰린 동물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뭔가 해방되길 기다리는 여자일지도 모른다. (...) 잔인하고 계획적인 성행위가 시작되고 시간도 길어진다. 그는 엉덩이를 짓궂어 그녀를 둘로 찢개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혈떡거리며 멈추고, 몸을 빼더니 물러난다. 그리고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이빨로 깨물면서, 다시 난폭하게 그녀의 몸속으로 삽입한다.

다음 장면에서 여성은 남성의 폭력적 성행위 앞에 “궁지에 몰린 동물처럼” 상처 입은 동물 – 폭력에 완전히 노출된 존재-의 모습을 하고 있다. 남성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 그의 남근은 무기처럼 표현된다. 이는 권위가 몸에 직접 침투하는 듯한 이미지를 비추며, 남근 중심주의 속 여성의 모습을 밝힌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폭력적 성행위를 넘어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 이는 여성이 성행위를 통해 가장 예민한 감각을 지니게 될 때, 또 권위가 직접 삽입될 때, 여성은 현재적 시공간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느끼는 것으로, 여성은 심지어 무언가로부터 해방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남성의 행위 역시 이상하리만치 강력한 분노를 동반하며 이루어지고, 남성은 자신의 폭압적 행위를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 그녀를 처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그 외부적 시선이 군인인 자신의 부하들이자 외부/아르헨티나 현실이라는 점, 위와 같은 상황 직전에 남성의 직업인 ‘대령’이 밝혀지고, 남성 동료들이 여성 앞에서 과거 이야기 – 게릴라전-를 나눴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여성 억압과 그녀가 느끼는 고통은 아르헨티나 현실과 직접 닿아있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녀가 감당하고 있는 ‘몸에 침투한 고통’은 국가가 공통으로 공유하는 ‘독재 트라우마’와 동

9) 팸 모리스,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 출판사, 1997

일시할 수 있으며, 그녀의 억압적 상황은 당시에 국가에 지워진 군부 독재의 가부장적 권력과 폭력적 행위들과 연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녀는 고통은 현재적 폭력과 과거의 기억-대령(로케, 현재의 남편)을 살해하려는 게릴라 임무를 수행하던 중, 함께 있었던 사랑하는 남자가 죽게 된 것-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고, 이는 역사적 관점에서 여전히 현재적 폭력에 노출된 민중, 그리고 과거의 독재/폭력의 기억에서 기인하는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아르헨티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그 억압의 층위는 더욱 강력해진다.

3. 여성의 몸을 통해 드러나는 국가적 트라우마

3.1. 신체에 각인된 역사

푸코는 사실상 "가계(Herkunft)는 육체에 부착된다."라고 주장하며, '육체'를 사건들이 각인된 표면으로 이해한다. 그에게 근대 역사는 "상이한 권력 간의 투쟁"이며, 근대적 육체는 "지배를 위한 투쟁의 중심지로, 역사적 자취를 보존하고 있는 한 권의 책"과 같다.¹⁰⁾ 변화하는 담론과 그 담론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인간의 신체는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교전적 힘에 의해 모양 지어지는 동시에, 새로운 모양으로 변형된다." 그리고 소설 『무기의 변화』에 등장하는 여성의 몸은 푸코가 말하는 근대적 인간의 '신체'와 같다. 주지하다시피, 소설 속 여성의 몸은 남성의 지배적 권위를 받아내고, 이것은 성행위를 통해 시각화된다는 점에서 여성의 신체 자체는 '지배를 위한 현재적 투쟁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몸은 역사적 증거로서 기능하며, 아르헨티나의 계속될 트라우마의 고통을 이야기해준다.

구체적으로, 그녀는 소설 전반에서 과거의 사건 - 게릴라 전투 중 현재의 남편(로케 대령)을 살해하는 임무를 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남자가 죽게 된 것. 이후, 기억을 잃게 되었고, 그녀를 로케 대령이 본보기로서 폭력의 대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보인다. 실제로, 그녀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기억을 잃게 되었고, 대체로 상황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로 미루어 짐작해 보았을 때, 그녀의 의식은 여전히 기억을 되찾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설은 부분적으로 그녀의 신체가 '감각'을 통해 사건을 기억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로부터 여전히 고통을 감지하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때로는 기억이 회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기억/느낌의 복잡한 구조가 울고 있는 그녀를 관통한다. 그러나 조금 뒤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녀는 뭔가 밝혀지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명쾌해지기 직전이었다고 느낀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 명쾌함에 도달하느니, 차라리 이런 상태, 떠다니는 듯한 상태,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상태가 더 낫다. 폭신평신했던 구름이, 갑자기 기억 속으로 추락해 머리를 부딪치지 않도록 그녀를 보호해준다.

이를 통해, 그녀는 과거를 감각적으로 기억해내고 있으며, 그녀의 신체는 과거/기억/역사를 '각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소설이 진행될수록 강해지는데, 소설의 다음 부분은 그 기억/역사가 남성/군부 세력에 의한 현재적 폭력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그의 혀가 쾌락의 중심지에 닿는 순간, 마치 고통의 절정에 도달하는 것 같다. 그녀는 이 전율이 지속되길 바라는 것처럼 눈을 꼭 감고, 이때 그가 소리친다. "눈 떠, 이년아!" 그 고함이 그녀를 조각조각 내는 것 같고, 속에서 그녀를 깨우는 것 같다-어쩌면 그녀를 깨물었을지도 모른다-. 그 고함소리는 마치 그녀의 팔이 부러질 때까지 비트는 것 같고, 그녀의 머리를 발로 차는 것 같다. 눈 떠, 어서 불어, 누가 널 보냈는지 말해, 누가 명령을 내리는지 말해.... 그녀는 아주 완강하게 '싫어'하고 외친다. 그 소리는 너무 깊은 곳에서 나서 전혀 그들 주위로 퍼지지 않고, 그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마치 한 발의 총알처럼 천장의 거울을 파열시키는 듯한, 그의 모습을 증식시키고 잘라내고 조각내는 것 같은 그 '싫어'라는 외침을. 비록 그는 느끼지 못하지만, 거울 속에서 그의 모습도, 거울도 흠 없이 완전하고 침착하다. 그녀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면서, 그의 실제 이름인 로케

10) 홍은영, 「푸코와 몸,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 철학연구, 2004, Vol.89, p414

를 처음으로 속삭이지만, 속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탄사람이 되어버린 그는 이 소리도 듣지 못한다.

이처럼, 그녀의 감각-기억-트라우마-고통의 시퀀스는 가부장적 폭력이 방아쇠가 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억/역사는 신체 내부에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외부에 닿지 못한다.

그녀는 스스로가 낯설다. 스스로를 낯선 사람, 다른 사람으로 느낀다. 누구와 다르다는 거지? 다른 여자들과? 아니면 자기 자신과? 그래서 그녀는 옷장에 붙은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려고 침실로 다시 뛰어간다. 그녀는 거기에 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반적으로 동글지 않고 울퉁불퉁 보기 흉한 무릎과 오로지 거울로 볼 수 있는, 등을 가로지르는 설명할 수 없는 긴 흉터 두툼기도 하고 만지면 볼록하게 느껴지는 흉터. (중략) 매를 맞은 등이다. ‘매를 맞다.’ 단어는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발음이 예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녀는 소름이 돋는다.

다음 장면 역시, 여성의 몸에 새겨진 기억/ 역사를 말한다. 그러나, 위 문단은 실제로 여성에게 남겨진 ‘상처’에 주목하며, 그 상처가 스스로 볼 수 없는 등/척추에 새겨진 것임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상처는 거울을 통해 스스로를 낯설게 바라보아야만 가까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억/고통/트라우마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간의 골격인 ‘척추’에 새겨져 있다는 점에서 이 트라우마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이야기한다. 한편, 우리는 두 인물 (라우라와 로케)이 정치적 상황 (게릴라 일원과 군부 세력- 대령)과 직접 닿아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계속해서 여성 억압을 국가적 차원의 트라우마로 확장하여 볼 수 있으며, 앞서 말한 푸코의 논의로부터 그녀의 구조적인 트라우마는 아르헨티나 공동의 구조적 트라우마로 확장할 수 있다.

한편, Gruia(2018)는 소설이 배경이 된 추악한 전쟁 중 국가 폭력이 직접 자행한 여성 억압을 이야기하며, 상처 입은 여성의 이미지와 폭력에 노출된 국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 구체적으로, Gruia(2018)은 소설의 배경이 된 추악한 전쟁 (Guerra Sucia)은 Portela가 지적했듯, 여성에게 더욱 억압적으로 작용하며, 그 자체로 남성의 헤게모니적 권력을 강화하는 사건이었음을 말한다. 또한, 소설 속 등장하는 남성 인물 로케가 망각상태의 라우라를 다시 직조하려는 방법-게릴라의 반역자에서 의욕을 잃은, 수동적이고 공포에 질린 여성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당시의 가부장적 시스템이 여성의 종속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과 같다고 말한다. 이로써, 우리는 앞서 전개된 ‘여성 억압’의 징후들 (여성의 위상, 완전한 대상화, 남근에 의한 폭력)을 이중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푸코와 Gruia의 지적으로부터, 남성의 시선에서 ‘갓난아이’의 위상을 갖는 여성은 지식/권력을 잃은 채 종속된 여성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당시의 국가 폭력의 행위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완전히 대상화’된 여성 역시 시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가 폭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시선에 점차 익숙해지는 여성의 모습은 신체에 침투한 권력이 여성을 조련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근’을 통해 형상화되는 직접적인 폭력은 가부장적 남성 권력 - 군부 독재의 폭력성을 이야기이며, 이는 푸코의 관점에서 아르헨티나 근대 역사의 “육체의 조련과 규율, 감시 체계에 내재한 권력 기술과 그 틈을 오가는 힘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정치적 현장에 잠겨있는 여성의 몸 - 상처 입은 몸 -을 통해 나타나는 압제의 기억은 집단적 트라우마를 좇는 과정과 함께하는 것이다.

3.2 상처 입은 여성의 이미지와 아르헨티나

발렌수엘라는 소설 전반에서 라우라에 대한 ‘여성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라우라의 서사를 아르헨티나의 상황을 상기시키는 도구로 이용하며, 이중적 차원 - 가부장적 사회와 국가 폭력-의 억압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음 장면에 주목해보자.

그녀의 몸 속에 있는 것, 어둡고 깊은 것, 그래서 그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녀의 자연적인 구멍과 다른 것은 없을까? 어둡고 도달할 수 없는 그녀의 핵심, 이곳이라는 장소, 그녀가 알고 싶어하지 않으며 또 정말로 알지 못하는 데도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감춰있는 내면의 장소는 없을까. 그녀는 요람에 든 것처럼 의자에 앉아 몸을 흔든다. 그녀가 잠이 드는 장소는 그녀의 어두운 우물이다, 잠자

코 있는 동물이다. 하지만 그 동물은 존재하고, 우물 내부에 있는 동시에 우물 그 자체다. 그녀는 그것이 할궐까봐 무서워서 자극하지 않는다. 그녀에게 냉대 바받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그녀의 깊고 어두운 가엾은 우물. 그녀는 자기 내면의 우물 속으로, 따뜻하고 축축한 자궁의 어둠 속으로 침침하여 오랜 시간을 보낸다. (...) 이따금 그녀는 메시지를 받는 것 같고, 발바닥이 불타는 느낌이 들어 문득 자신의 외피를 되찾지만 그 메시지를 감당하기는 너무도 벅차기 때문에 차라리 극심하게 진동하는 어두운 우물 밖에 있는 것이 더 낫다. (...) 우물 밖에는 무(無)와 함께, 외양으로 보서는 그이의 남성 같은 그것이 있다. (...) 그녀가 구멍-우물을 통해 조준하듯 그를 보는데, 그는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둘 중 누가 소총을 들고 있을까? 분명히 그녀일 것이다. (...) 방어를 포기하고 (그이에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 그녀는 이런 일에 서서히 적응해간다.

위 문단에서 여성의 이미지는 동굴/상처받은 동물/자궁의 이미지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녀는 감각적으로 느끼는 내면의 메시지 – 기억/트라우마/고통-를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녀의 이미지는 ‘스스로에게 버림받은 존재’의 이미지와 연결되며, 여전히 남근에 노출된 억압적 존재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녀는 서서히 그 남근/권력을 각인하며, 현재적 억압에 익숙해지나, 그러나 우물 밖에 항상 있는 남근의 이미지는 또 다시 그녀에게 과거의 고통을 상기시키며, 또 다른 차원의 억압을 지운다. 그리고, 이후 등장하는 우물/자궁/기억/느낌이 “아득한 곳에서 찾아온 느낌이고, 오래전 과거에서 찾아온 느낌이며, 침수 지역에서 찾아온 느낌”이라고 표현된다는 것,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표현된다는 것은 그것이 공동의 트라우마임을 명확히 한다. 이에 더해, 여기서 언급한 ‘오래전 과거’와 같은 시간성은 동굴 속 깊이와 중첩되며, 그녀 내면의 깊이감이 역사적 시간성과 연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위 텍스트로부터 여성 억압은 분명히 폭력에 노출된 국가의 이미지를 이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잇따라, 개입되는 외부적 상황과 기억의 파편 – 게릴라전, 총구, 사랑하는 남자의 죽음, ‘대령 호칭’과 매우 급한 발소리- 등은 앞서 말했듯, 위 소설이 역사적 공간에 쓰인 것임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킨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버림받은 존재의 이미지는 아르헨티나의 상황과 연계되며, 국가 폭력과 트라우마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드러낸다.

4. 여성과 국가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

루이사 발렌수엘라의 대표작 『무기의 변화 Cambio de armas』사회에 내재한 권력 관계를 성(性)과 섹슈얼리티의 관계로 잘 풀어낸 작품으로, 여성의 몸을 통해 드러나는 가부장적 권력은 사회의 남근, 시선, 여성의 위상을 통해 드러나며,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의 몸은 폭력에 노출된 아르헨티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푸코의 관점에서 역사적 산물인 그녀의 ‘신체’는 계속해서 권위가 침입하며 투쟁하는 공간이자,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고통받는 공간이다. 또한, 이러한 이미지가 여성의 몸, 특히 척추의 상흔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르헨티나의 과거의 기억이 구조적인 것으로 남아있으며, “망각상태”로는 회복할 수 없는 공동의 트라우마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발렌수엘라는 여성 개인의 서사를 집단적 역사로 끌어내며,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여성의 몸에 드러난 여성 억압을 국가적 트라우마와 동시에 짚어내고 있다. 한편, 작품은 말미에서 “나에게도 나만의 무기가 있어.”라고 말하는 남성을 통해, 현대의 무기는 보이지 않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육체에 각인되는 상흔처럼, 또 시선과 성 착취처럼 은밀하고 계획적으로 육체에 침투하는 것임을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소설 말미에 변화하는 여성의 모습 – 억압의 주체인 남성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모습-은 계속해서 억압의 지위를 유지하는 다른 페미니즘 텍스트들과 달리, 또 다른 전복적 여성 ‘주체’를 이야기하며, 피해자-가해자의 관계를 또 다른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게 한다.

참고문헌

- 로이스 타이슨, 「여성주의 비평」, 『비평 이론의 모든 것』, 서울 : 엘피, 2012
-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나남, 2016
- 팸 모리스,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 출판사, 1997
- 강경희, 「라틴아메리카 제2기 여성운동의 특징: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확대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세계 지역연구논총 26집 3호, 2008
- 김현균, 「『무기의 변화』의 여성 인물 성격화에 나타난 페미니즘의 전략」, 스페인어 문학 제60호, 2008
- 박병규, 우석균, 조혜진, 「무기의 변화」, 『침대에서 바라본 아르헨티나 : 루이사 발렌수엘라 중단편선』, 소명, 2010, pp 25-72
- 이순주, 「제4 물질 페미니즘을 넘어: 아르헨티나 페미니즘의 확산」, 이베로아메리카 硏究, 2020-04-30, Vol. 31 (1), p.89-113
- 조혜진, 「루이사 발렌수엘라의 『무기의 교환 Cambio de armas』에 나타난 서술성」, 스페인어 문학 제42호, 2007
- 조혜진, 「루이사 발렌수엘라의 작품에 나타난 '추악한 전쟁' 이전의 국가 테러리즘과 트라우마」, 스페인어 문학 제71호, 2014
- 홍은영, 「푸코와 몸,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 철학연구, 2004, Vol. 89, p387-417
- Diaz, Gwendolyn Politics of the Body in Luisa Valenzuela's "Cambio de armas" and "simetrias", World Literature Today, Autumn, 1995, Vol. 69, No.4, Focus on Luisa Valenzuela (autumn, 1995), pp.751-756
- Gruia, Ioana. "Cambio de armas" de Luisa Valenzuela a la luz del pensamiento de Hélène Cixous y de los estudios del trauma, Rilce. Revista de Filología Hispánica, 2017-11, Vol.34 (1), p.206-224
- Jameson, Fredric, Third-World Literature in the Era of Multinational Capitalism, Duke University Press, Social Text, No. 15 (Autumn, 1986), pp. 65-88
- Passalacqua, Camille Terese, The corporeal trauma narratives of Gayl Jones's "Corregidora," Phyllis Alesia Perry's "Stigmata" and Luisa Valenzuela's "Cambio de armas",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 Saltz, Joaane. Luisa Valenzuela's Cambio de Armas: Rhetoric of Politics, Confluencia (Greeley, Colo.), 1987-10-01, Vol.3 (1), p.50

2부 세션5

LASAK-외교부 논문상 수상자 세션

[LASAK-외교부 논문상 시상식]

[좌 장]

- 하상섭(한국외대)

[발 표]

- 한제인(한국외대 대학원) "수막카우사이(부엔 비비르): 채굴주의(extractivism)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인가? 에콰도르의 El Mirador 광산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 손은아(한국외대 대학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중미통합체제(SICA) - 코로나19 이후 SICA의 대응책과 통합 프로세스 확대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 박근유(한국외대 대학원) "콜롬비아의 베네수엘라 난민 수용 연구: 난민 수용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토 론]

- 이태혁(부산외대), 정상희(계명대)



수막카우사이 (부엔 비비르)

채굴주의(extractivism)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인가?
에콰도르의 티 Mirador 광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서론

- 핑크타이드 (pink tide)
 - 중도 좌파가 중남미에서 정권을 잡은 현상
- 계기:
 - 지난 70년대의 국제석유파동과 80년대의 외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남미 지역에 외부개입 시작
 - 중남미 경제가 신자유주의, 자유시장주의를 지향하는 구조로 점차 변화
- 부엔비비르, 대안적 개발 모델로 등장
 - 신자유주의 발전모델을 반대하고 사회적 평등 및 포용 추구



서론

-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Rafael Correa)
 - 원주민과 환경보호에 관심 & 좌파성향
 - 2006년 대통령으로 당선
 - 포스트 개발주의적 발전 추구
- 추진:
 - 헌법 개정
 - 부엔비비르 명문화
 - 자연의 권리
 - 원주민 커뮤니티 보호



서론

- 남부 지역에서 광물자원 개발 진행
- 경제성장을 위해 자원개발에 의존하는 모습이 과연 포스트 개발주의적 발전, 즉 부엔비비르를 실천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는지 의문
- 발제 구조:
 - 부엔비비르와 개발담론
 - 공공정책과 헌법
 - El Mirador 광산 프로젝트
 - 부엔비비르 이행
 - 실패와 구조적인 현실
 - 결론



부엔비비르 & 개발담론

- 케추아(Quechua), 아이마라(Aymara) 원주민의 비전
- 수막카우사이(Sumak Kawsay) / 수막카마냐(Sumak Qamaña)
- 개념:
 -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조화 속에서 공존하는 삶 추구
 - 사회적 평등과 환경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 서구적 문명발전을 비판하는 시각
- CONAIE (La Confederación de Nacionalidades Indígenas del Ecuador)



부엔비비르가 반영된 정책과 헌법

La Constitución 2008 (헌법)

Art. 71. La naturaleza o Pacha Mama, donde se reproduce y realiza la vida, tiene derecho a que se respete integralmente su existencia y el mantenimiento y regeneración de sus ciclos vitales, estructura, funciones y procesos evolutivos.

Toda persona, comunidad, pueblo o nacionalidad podrá exigir a la autoridad pública el cumplimiento de los derechos de la naturaleza. Para aplicar e interpretar estos derechos se observarán los principios establecidos en la Constitución, en lo que proceda.

El Estado incentivará a las personas naturales y jurídicas, y a los colectivos, para que protejan la naturaleza, y promoverá el respeto a todos los elementos que forman un ecosistema.

El Mandato Minero (광업 명령)

Considerando:

Que, es necesario reducir potenciales impactos negativos al ambiente provocados por las actividades mineras;

Art. 1. Se declara la extinción sin compensación económica alguna de todas las concesiones mineras que en la fase de exploración no hayan realizado ninguna inversión en el desarrollo del proyecto al 31 de diciembre del 2007 o que no hayan presentado su respectivo estudio de impacto ambiental o que no hayan realizado los procesos de consulta previa, inclusive las que estén pendientes de resolución administrativa.

El Mirador 광산 프로젝트

- 프로젝트 개요:
 - 중국 기업인 Ecuacorriente사가 주도
 - 남부지역, Zamora Chinchipe 지방에 위치
 - 구리, 금 등을 채굴하기 위한 광산
- 문제:
 - Shuar 원주민 커뮤니티 거주
 - 광산 개발로 부터 오는 환경 오염 => 원주민들의 생계를 파괴



부엔비비르 이행

- 이유:
 - 행위자의 이해관계
 - 에너지자원부 (The Ministry of Energy and Non-Renewable Natural Resources, MENRR)
 - Ecuacorriente (ECSA)
- 결과:
 - 부 지침 172호 (The Ministerial Agreement No. 172) 실행
 - 영향 기준 (impact criteria)

Actor	Interests	Position	Argument
MNC ECSA	Cooper, gold	Pro-mining	Profits and payments of royalties
Communities The Shuar indigenous people	Self-determination, land ownership, good living	Anti-mining	Respect for indigenous rights and nature
State MENRR	Financial benefits from mining projects	Pro-mining	Job creation and aid to local development

실패와 구조적 현실

- 1차 산업에 의존적인 에콰도르의 경제구조
- 21세기, 중국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광물 등 여러 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
 - 주변적 역할(peripheral role) 심화
 - 채굴주의(extractivism)에 의존한 개발



결론

- 부엔비비르는 원주민으로 부터 유래되는 좋은 콘셉
- 물질적 야망에서 벗어난 사회적 포용과 자연을 보호하는 비전 추구
- 고질적인 채굴의존적 개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희망 의미
- 계속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존재 하는 한, 채굴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개발을 할 수 밖에 없음
- 에콰도르의 엘 미라도르 사례와 한계점은 부엔비비르처럼 이상적인 비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중남미내 주변국가들에게 교훈

참고문헌

- Altmann, P. (2019). The Commons as Colonisation- The Well-Intentioned Appropriation of Buen Vivir. *Bulletin of Latin American Research*, 39(1), 83-97. doi:10.1111/blar.12941
- Andreucci, D. (2017). Limits to "counter-neoliberal" reform: Mining expansion and the marginalisation of post-extractivist forces in Evo Morales's Bolivia. *Geoforum*, 84(1), 280-291. doi:10.1016/j.geoforum.2015.09.002
- Asamblea Nacional Constituyente de Ecuador (2008).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Ecuador, 20 October, Registro Oficial, Quito.
- Bretón, V. (2013). Etnicidad, desarrollo y 'Buen Vivir': Reflexiones críticas en perspectiva histórica. *European Review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95), 7195. DOI: <http://doi.org/10.18352/erlacs.9231>
- Chicaiza, G., & Yáñez, I. (2013). The mining enclave of the Cordillera del Cóndor. In *Ecological economics from the ground up* (pp. 55-88). Abingdon, Oxon: Routledge.
- Fengchao, M. (2012, March 6). *Announcement in respect of the mining contract of Miradormine entered into between Ecuacorriente S.A. and the government of Ecuador* [PDF]. Beijing: 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oration Limited.
- GARN. (2013, February 26). The case for Rights of Nature in face of the Mirador Open Pit Copper Mining Project. Retrieved from <https://therightsofnature.org/the-case-for-rights-of-nature-in-face-of-the-mirador-open-pit-copper-mining-project/>

- Martinez-Alier, J., & Walter, M. (2016). *Environmental governance in Latin America*(pp. 58-85). Houndmills, Basingstoke,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doi:10.1007/978-1-137-50572-9_3
- Mercado, J. (2017, December 25). Buen Vivir: A New Era of Great Social Change [Web log post]. Retrieved October 19, 2020, from <https://blog.pachamama.org/buen-vivir-new-era-great-social-change>
- Merino, R. (2016). An alternative to 'alternative development'? Buen vivir and human development in Andean countries. *Oxford Development Studies*, 44(3), 271-286. doi:10.1080/13600818.2016.1144733
- Pallottino, M., & Monni, S. (2015). Beyond growth and development: Buen Vivir as an alternative to current paradigm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Decision Making*, 1(3). doi:10.1504/IJEPDM.2015.074300
- SENPLADES. (2009). *Plan Nacional para el Buen Vivir 2009-2013: Construyendo un Estado Plurinacional e Intercultural*. Quito, Ecuador: Secretaría Nacional de Planificación y Desarrollo SENPLADES.
-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2009). SEC. Retrieved from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345564/000120445910000604/exhibit1-1.htm>.
- Van Teijlingen, K., & Hogenboom, B. (2016). Debating Alternative Development at the Mining Frontier: Buen Vivir and the Conflict around El Mirador Mine in Ecuador. *Journal of Developing Societies*. doi:10.1177/0169796X16667190

- Vandegrift, R., Thomas, D. C., Roy, B. A., & Levy, M. (2018). The extent of recent mining concessions in Ecuador. *Rainforest Information Center*. Retrieved from <https://ecuadorendangered.com/research/reports/RIC-Mapping-Report-v1.1-20180117-eng.pdf>
- Veltmeyer, H. (2014). Bolivia: Between voluntarist developmentalism and pragmatic extractivism. In *The New Extractivism*(pp. 80-113). Zed Books.
- Villalba, U. (2013). Buen Vivir vs Development: A paradigm shift in the Andes? *Third World Quarterly*, 34(8). doi:10.1080/01436597.2013.831594
- Walsh, C. (2010). Development as Buen Vivir: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de)colonial entanglements. *Development*, 53(1), 15-21. doi:10.1057/dev.2009.93
- Warnaars, X. S. (2012). Why be poor when we can be rich? Constructing responsible mining in El Pangui, Ecuador. *Resources Policy*, 37(2), 223-232. doi:10.1016/j.resourpol.2011.10.001
- Williford, B. (2018). Buen Vivir as Policy: Challenging Neoliberalism or Consolidating State Power in Ecuador.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24(1). doi:10.5195/JWSR.2081.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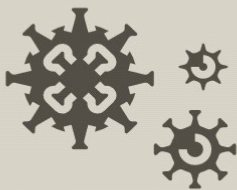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중미통합체제

- 코로나19 이후 SICA의 대응책과 통합 프로세스 확대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학과 손은아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동계학술대회

서론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제한, 소비 및 투자 억제, 노동 공급, 생산 감소
→ 지난 40년간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 예상 (World Bank)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과 가장 먼 중앙아메리카

→ 강력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



국수주의 강화, 세계화 역행

대부분의 국가: 전 세계 공동의 문제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 인지
그러나 여행 제한, 국경 봉쇄, 의료품 수출제한 등 "자국 우선주의" 움직임 보임

코로나19 확산 이전 미국은 세계화를 주도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리쇼어링 추진, '중국 책임론', 동맹국 무역 합의 강요 등 세계화에 역행하는 모습
보임

서론



중앙아메리카: 코로나19시대 모범적 협력 사례

협력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신뢰가 무너지는 아이러니한 상황 하에서 경제 규모가 작고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이 미미했던 중미 국가들의 모범 사례 주목

코로나19이전 중미 통합: 위기와 한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5개국) → 19세기 연방공화국 구성

20세기 초 중미사법재판소 창설, 1951년 중미기구(ODECA), 1960년 중미공동시장(CACM) 설립 등 역내 통합 시도는 많았으나 내전, 국가 간 전쟁, 영유권 분쟁, 회원국 간 경제적 격차 등으로 EU와 같은 높은 수준의 통합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코로나19 이후 중미 통합: 긍정적 전망

세계의 다른 지역 공동체: 공동체 차원보다는 국가별 자체적 대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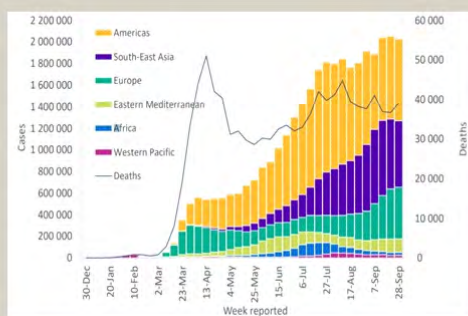
SICA: 공동체 차원의 신속한 팬데믹 대응, 모범적인 통합체 역할 제시

→ 본 연구는 중미 지역에서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SICA의 대응 사례와

중미 지역의 통합 프로세스가 확대되는 현상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함

중미 지역 코로나19 현황과 영향

미주 지역 인구 백만명 당 코로나19 감염자 및 사망자 수 상위 10개국



지역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ECDC)

Name	Cases - cumulative total per 1 million population	Flag
Global	4,794,026	
Panama	27,734.06	
Peru	25,660.92	
Chile	25,161.31	
Brazil	23,911.61	
United States of A...	23,071.73	
Argentina	19,556.74	
Puerto Rico	18,760.49	
Turks and Caicos Islands	17,976.14	
Colombia	17,741.66	
Costa Rica	17,164.7	

Name	Deaths - cumulative total per 1 million population	Flag
Global	137,686	
Peru	1,007.62	
Bolivia (Plurinational...	710.36	
Brazil	706.62	
Chile	696.69	
Ecuador	690.81	
Mexico	648.73	
United States of A...	642.91	
Panama	575.23	
Colombia	543.6	
Argentina	52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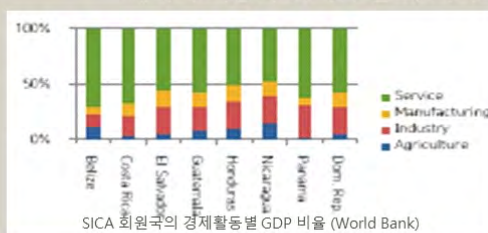
라틴아메리카 전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 급증 →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등 중앙아메리카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나타나고 있으나, 인구 백만명 당 코로나19 감염자 및 사망자 수는 매우 높은 편이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또한 코로나19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니카라과 정부의 통계 자료 은폐 의혹 등으로 인해 중미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현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중미 지역 코로나19 현황과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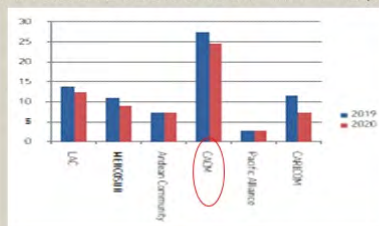
2020년 SICA 회원국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GDP 성장률 → 마이너스 수치
재화 무역량의 급격한 감소, 서비스 교역량 (특히 관광 부문) 크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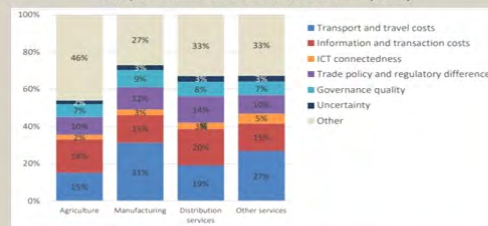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일부 국가에서 재화 무역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SICA 8개 회원국 모두의 GDP 비중에서 서비스업(관광업)이 기여하는 비율 가장 높음 → 큰 손실

중미 지역 코로나19 현황과 영향

전년 대비 2020년 1월-5월 LAC 경제통합체 역내 무역 비율 (ECLAC)



산업/항목별 무역 비용을 결정하는 요소 (WTO)



2020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 전반적으로 역내 수출량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중미공동시장(CACM)은 여전히 역내 경제 통합체 중 가장 높은 역내 무역 비중을 보임

그러나 육로, 해상, 항공 운송료의 비용이 모두 상승하였으며, 국경 폐쇄 조치로 운송에 시간적 지연이 발생

→ 무역 비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운송료는 15~31%의 비중을 차지, 무역 비용 증가로 이어짐

→ 중미 지역의 경우 역내 무역의 90%가 육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경 폐쇄 조치와 그로 인한 운송 지연, 운송 비용의 증가는 직접적인 경제적인 타격을 유발함

중미통합체제(SICA)의 대응 - Regional Contingency Plan



3월 12일, SICA 회원국 수반은 온라인 회의를 통해 각 국가의 상황 분석 및 공동조치 논의
→ “코로나19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중앙아메리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내 비상 계획(Regional Contingency Plan) 제정 및 발효 (3월 26일)
: 건강과 위험관리, 무역과 재정, 치안/사법/이주,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국제협력관리 등 5가지 테마

CABEI: 인도주의적 명목 하 회원국 당 1백만 달러 지급 + 역내 비상 계획 관련 19억 달러 이상의 자금 지원 (진단 키트 구매, 회원국 정부 재정 비상자금, 회원국 중앙/시중은행 지원 포함)

역내 비상 계획에 따라 SICA 회원국들은 COMISCA (중미-도미니카공화국 보건장관위원회)를 통해 대량의 의료물자 구매 (공동협상),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질병/방역관리 활용 정보 공유, 홈페이지 및 메신저 채널을 통해 투명한 정보를 공개 → 니카라과 등 소수의 사례 제외하고는 역내 비상 계획에 따른 조치를 잘 시행하는 편

중미통합체제(SICA)의 대응 - Lineamiento de Bioseguridad Sector Terrestre C.A



역내 비상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의 유동성 유지, 역내 상품 운송에 대한 완전한 자유 보장 명시

2020년 5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코스타리카 정부는 국경 지대를 오가는 인근국의 운송업자들의 국경 진입/통행에 대한 제한 조치를 규정함
→ 육로 무역 정체, 니카라과의 국경 폐쇄 (반발 조치)

CABEI: 인도주의적 명목 하 회원국 당 1백만 달러 지급 + 역내 비상 계획 관련 19억 달러 이상의 자금 지원 (진단 키트 구매, 회원국 정부 재정 비상자금, 회원국 중앙/시중은행 지원 포함)

역내 비상 계획에 따라 SICA 회원국들은 COMISCA (중미-도미니카공화국 보건장관위원회)를 통해 대량의 의료물자 구매 (공동협상),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질병/방역관리 활용 정보 공유, 홈페이지 및 메신저 채널을 통해 투명한 정보를 공개 → 니카라과 등 소수의 사례 제외하고는 역내 비상 계획에 따른 조치를 잘 시행하는 편

코로나19 이후 통합 확대 현상 고찰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통합 프로세스: 1960년대까지 제3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

- 비판: 기술 위주의 제한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기관, 개별 국가의 역량 부족
-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의 군사적 갈등 (1969) 이후 통합 시도 사실상 중단 (온두라스의 ODECA 탈퇴, 중미 지역 역내 운송의 제약)



1980년대 후반 코스타리카 오스카르 아리아스 대통령: 중미평화협정 (Esquipulas)

-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이 주체가 되어 평화, 민주주의 제도화
- 중앙아메리카 전체를 포괄하는 정치, 경제적 통합기구 SICA 발족 계기
- 이 과정에서 **신뢰 구축 조치**는 기존 통합 프로세스에 존재했던 긴장과 불신을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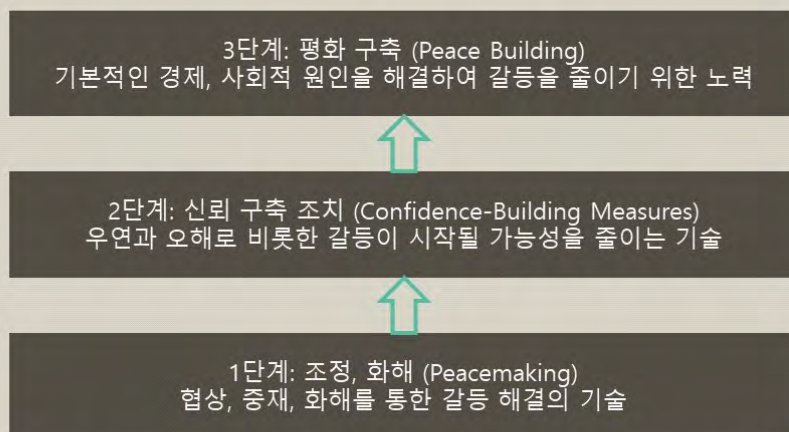


중앙아메리카 신뢰 구축 조치

- 군사적 수단이 아닌 외교적 수단, 협상, 중재, 화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함
- 모든 갈등과 분쟁에 적용 X, 그럼에도 갈등 발생 가능성 ↓, 무력 충돌 방지
- 성공 요인: 투명성과 개방성/예측 가능성과 신뢰성/호혜성과 균형/적절한 의사소통

코로나19 이후 통합 확대 현상 고찰

갈등 해결과 신뢰 구축의 단계 (Child, 1995)



1980년대: 중미 지역 전반에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 → 국가 간 협상과 대화 → 평화와 민주주의 제도화

1990년대: 탈냉전화, 내전 종식 선언 → 포괄적이고 초국가적 지역 통합체(SICA) 설립

* SICA는 법률과 제도를 통해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의사소통, 상호 평등한 관계와 신뢰를 명시 → 극단적 갈등 발생 X

코로나19 이후 통합 확대 현상 고찰

그렇지만 갈등이 정치, 경제, 사회적 원인에 깊게 기인한다면
단순한 신뢰 구축만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신뢰 구축은 갈등의 가능성을 낮출 뿐

SICA 출범 이후에도 근본적인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 역사적으로 지속된 영토 주권 문제 등 해결 X
(깊은 차원에서 기인한 통합 저해 요인으로 EU와 같은 높은 수준의 통합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된 신뢰 구축 조치에 따라 갈등이 나타나는 극단적인 양상과 빈도가 크게 줄어듦

코로나19 확산 이후, SICA 회원국 내 가장 시급한 문제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것

기존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방면에서 근본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던 각 회원국이
코로나19라는 공동의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직면하게 됨

코로나19 이후 통합 확대 현상 고찰



- 1980년대 후반부터 1991년 SICA 발족까지 이어진 중미 지역의 평화 프로세스
- 통합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 (내전/무력충돌)을 제거할 수 있다는 공통적 인식이 내재함
 - 21세기 들어서 발생한 회원국 간 분쟁, 회원국 간 격차로 인한 결속력의 약화는 각 회원국의 이해관계에서 기인 (근본적인 문제 해결 X)



- 2020년, 코로나19라는 공동의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 ↑
- 제도적으로 명시된 대화와 합의를 통한 프로세스 실현 가능성 ↑
 - Child가 제시한 기존 2단계 수준의 갈등 해결, 신뢰 구축 조치에서 더 나아가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3단계 수준에서의 대응이 실현될 수 있었음



- SICA 회원국은 개별 국가의 경제 규모가 크지 않으며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높음
- 2020년 현재, 통합을 저해하는 문제요인: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것
 - 코로나19가 SICA의 통합 프로세스를 촉진시켰지만, 팬데믹 종식 이후 다른 견해 보일 가능성 有
 - 동시에 통합체로의 위기 대응 경험이 코로나19 종식 이후 통합 프로세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함

결론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국수주의 강화, 긴장 관계가 확산되는 상황

- SICA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의 지역 공동체 중에서 유일하게 신속하고 우수한 블록 차원의 대응을 보인 것으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음
- SICA를 통한 통합과 협력의 가치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 실현됨
- 19세기부터 지속된 ‘하나의 중앙아메리카’를 위한 경험 축적의 산물
- 1980년대 후반 역내 평화, 내전 종식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신뢰 구축 조치는 21세기에도 계속되었던 회원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였음 (그러나 근본적인 갈등 원인 해결 X)

코로나19는 중미 지역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중미 통합 프로세스에 있어 회원국 간 결속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

- SICA 회원국은 기존의 갈등을 뒤로하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위기인 ‘코로나19’를 계기로 활발한 대화와 합의를 진행
- 출범 30주년을 맞이한 SICA, 코로나19 위기를 발판삼아 강력한 통합체제로 거듭날 기대로 활용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ECLAC (2020a), Estudio Economico de America Latina y el Caribe: Principales condicionantes de las políticas fiscal y monetaria en la era pospandemia de COVID-19, Santiago: United Nations
- ECLAC (2020b), The Effects of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on international trade and logistics, Special Report COVID-19 No.6
- ECLAC (2020c), Recovery measures for the tourism sector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resent an opportunity to promote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COVID-19 Reports
- Gary W. Wynia (1970), Central American Integration: The Paradox of Succes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24, pp 319-334
- Harold O.M. Rocha (2020), “COVID-19, Nicaragua y el nuevo orden mundial, Jorge A. Huete-Perez, COVID-19 el caso de Nicaragua Aportes para enfrentar la pandemia, Nicaragua, Academia de Ciencias de Nicaragua, pp 48-54
- IDB (2020), LAC post COVID-19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Country department Central America, Haiti, Mexico, Panama and Dominican Republic
- Jack Child (1995),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nd Their Application in Central America”, Augusto Varas,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Latin America, Washington D.C: The Henry L. Stimson Center, pp 5-22
- SICA (2020), Regional Contingency Plan
- SICA (2020), Lineamientos de Bioseguridad, Ante la COVID-19, Aplicables al sector del transporte terrestre centroamericano
- WHO (2020), Coronavirus Disease
- WTO (2020a), Trade Statistics and Outlook: Trade falls steeply in first half of 2020
- WTO (2020b), Trade costs in the time of global pandemic
- World Bank (2020), Global Economic Prospects, Washington: World Bank

콜롬비아의 베네수엘라 난민 수용 연구: 난민 수용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Venezuelan Refugees Acceptance in Colombia: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Domestic Determinants of Refugee Acceptance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근유



I. Introduction

- Since 2015, Venezuela's political, economic, and humanitarian crisis has moved 5 million of its population to other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HCR and IOM defines as Venezuelan refugee crisis.
- Venezuelan refugee migration trends were primarily aimed at Colombia and Brazil which is sharing border and, Ecuador, Chile and Peru were primary countries of destinations. These countries responded with humanitarian acceptance policies for Venezuela refugee.
- However,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Venezuelan refugees annually, Latin American host countries have shifted to a 'closed border' policy for social and economic changes except Colombia.
- Furthermore, Felipe Muñoz, adviser to the president of Colombia for the Colombian-Venezuelan border, noted in January 2020 that Colombia is the only destinations that remains totally open, and Juan F. Espinoza, General Director of *Migración Colombia*, points out in March 2020 that closing the border is not a perfect option to solve the Venezuelan crisis, suggesting that Colombian policy to host Venezuelan refugees will not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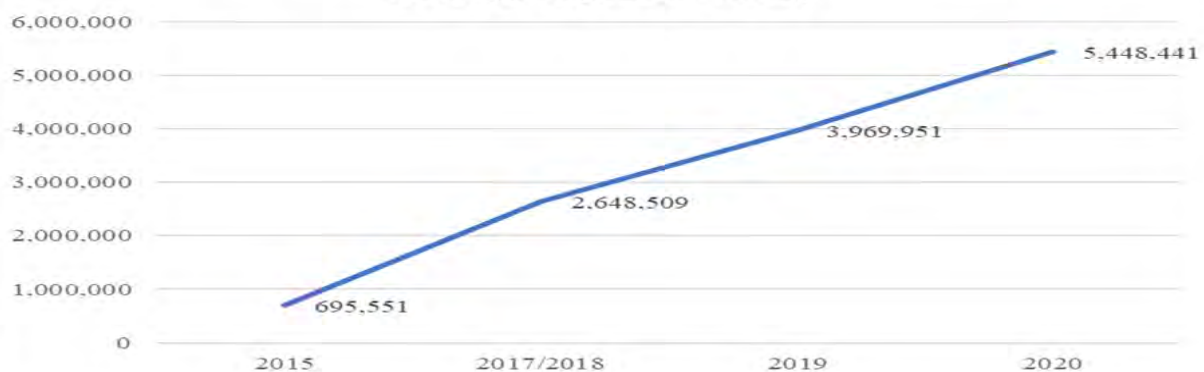
II-1. literature Review

<Table 2-1.> The Factors influenced on Refugee Acceptance on Host Country

Factors Influenced	Context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Society on Host Country	Sufficient support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Loescher et al. (2008), Whitaker B.E(2008)
	Direct economic support for refugees Agblorti(2011)
the capacity of the host country	The presence of a universal social security system, Bidinger(2014)
	The presence of security system to prepare for the negative circumstance that may occur as a refugee, Opaye (2005)
	Securitization of Refugee Agenda in host country, Song (2015)

III-1. Venezuelan Refugee Crisis(pp.12-15)

<Figure 2-1> The Number of Venezuelans Refugees(2015-2020)



Source: 2015 year, 2017/2018 – IOM (2018)

2019 year – R4V (r4v.info/search date: 2020.11.02)

III-2. The Acceptance of Venezuelan Refugees



The Response to Venezuelan Refugee in the state of the Lima Group					
Chile	Ecuador	Peru	Mexico	Panama	Argentina
strengthening of entry requirements in 2019			Strict conditions for stay		Acceptance

Nevertheless, the response to Venezuelan Refugee Acceptance of these countries to Latin America appears differently.

III-2. The Acceptance of Venezuelan Refuge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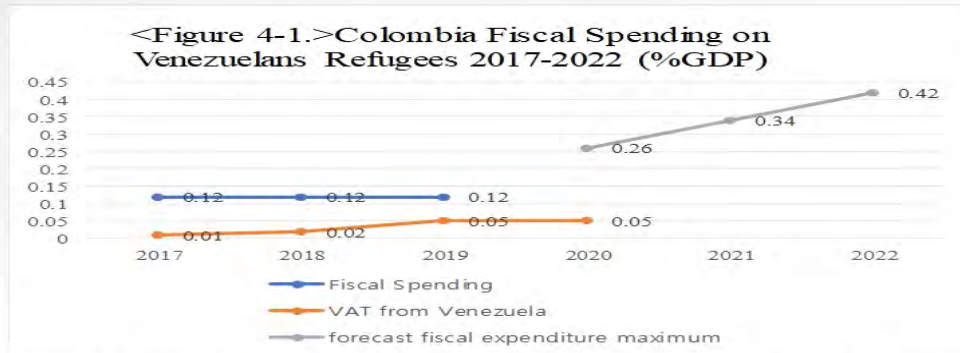


- In contrast to the other countries, Colombia accepts Venezuelan refugees and features of Colombian acceptance are as follows:
 - 1) The 2 presidents of Colombia(Juan Manuel Santos and Ivan Duque Marquez) consider as a victim of humanitarian violence
 - 2) In terms of responses in Colombia, Colombia issued PEP and newly established related agencies to prepare for the long-term influx of Venezuelan refugees

IV-1 The Support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Colombia

한국외국어대학교
Korea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ithout a doubt, the influx of Venezuelan refugee toward Colombia causes Colombia's financial bu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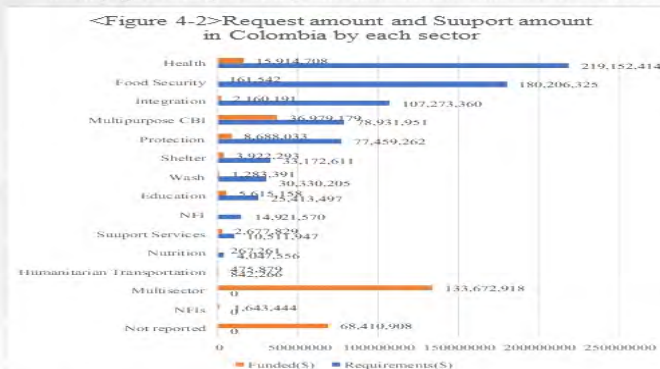


Source: Reconfiguration by Author based on Banco de la República.,2020: 8-10

IV-1. The Support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Colombia

한국외국어대학교
Korea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this respect, international support can mitigate the financial burden of the host countries and lead to humanitarian response from the host countries. In fact, international support for Colombia is being provided, mainly providing funding and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Source: r4v.info (search date: 2020.11.06)

Resources by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olombia 2017-2019		
Donor	Million \$	% in total participation
USA	202.8	52.8
EU countries	96.1	25.0
Global Concessional Financing facility	19.1	5.0
Canada	29.0	7.6
Others	8.0	2.1
Agency	29.0	7.6
Total	384	100

Source: Melo-Becerra et al.,2020: 11

IV-1.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ed in Colombia - The Support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Colombia (pp.30-41)



		People targeted*	People in need*	Financial Requirements (USD)	Partners
Education		121 K	696 K	33.44 M	14
Food Security & Nutrition		1.12 M	1.81 M	167.93 M	23
Health		1.43 M	2.26 M	192.19 M	31
Integration		444 K	1.93 M	116.67 M	26
Multisector**		230 K	1.56 M	50.92 M	20
Protection***		737 K	1.73 M	91.04 M	41
WASH		402 K	1.01 M	19.29 M	22
Multipurpose CBI				55.69 M	18
Support Services****				12.05 M	12

*The figure of people in need and people targeted does not include host communities. **Disaster (NFI) humanitarian intervention. *** Includes CBI, Child Protection, Human Trafficking & Smuggling. **** Communication, Coordination, Information Management and Fundrai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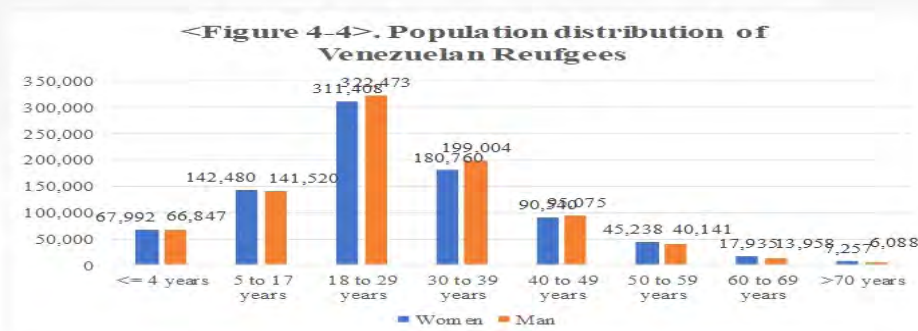
Source: RMRP, 2020:69

As shown above, international support has benefited from 83.6% of Venezuelan refugee population in terms of medical care and 62 % of food.

IV-2.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ed in Colombia - The Colombian Institutional Basis for Venezuelan Refugee (pp.41-51)



- Venezuelan Refugee population is transformed into a new workforce in Colombia. Before 2019, there were three conditions under which foreigners could legally work in Colombia.
- The Colombi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PEPFF (Permiso Especial de Permanencia para el Fomento de la Formalización) in 2020.
- The core content of PEPFF is that labor for a population that corresponds to illegal stay gives it legal status during the working period specified in the labor contract and gives it access to Colombia's social security system at the same level as P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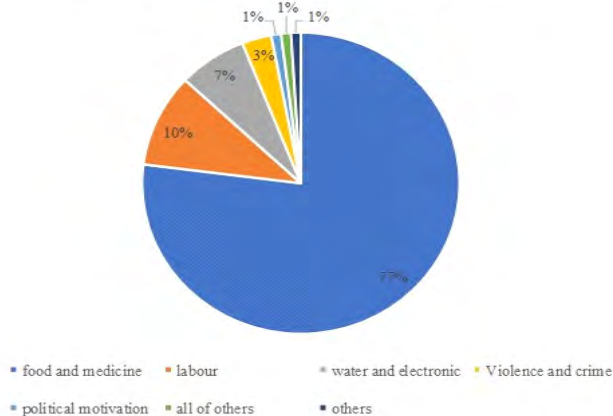


Source: Migración Colombia (<https://www.migracioncolombia.gov.co/infografias/venezolanos-en-colombia-corte-a-30-de-abril-de-2020>)

IV-3. Desecuritization of Venezuelans Refugees Agendas in Colombia



<Figure 4-5>. Motivation of Venezuelan Refugees to



Source: GBAO, 2019, pp.15

	VARIABLE DEPENDIENTE (LOG)			
	HOMICIDIOS	LESIONES PERSONALES	DELITOS SEXUALES	HURTO A PERSONAS
MIGRANTEST1 (LOG)	0.047 (0.099)	0.050 (0.081)	0.001 (0.101)	-0.066 (0.102)
EFFECTOS FIJOS DE MUNICIPIO	✓	✓	✓	✓
EFFECTOS FIJOS DE TIEMPO	✓	✓	✓	✓
CONTROLES	✓	✓	✓	✓
RESUMEN DEL MODELO				
ESTADÍSTICO F	13.67	32.31	14.04	20.03
NUMERO DE OBSERVACIONES	2236	2236	2236	2236

Source: para la Paz, F. I. (2019), 2019: 25

IV-3. Desecuritization of Venezuelans Refugees Agendas in Colombia



- the use and exploitation of Venezuelan refugees in illegal crime areas such as illegal mining, smuggling and drug trafficking appears to have increased (Conpes, 2019: 72-73).
- The victims of murder, injury, sexual abuse and theft of Venezuelan refugees in 2018 increased by 181%, 278%, 314% and 199%, respectively, compared to 2017, while victims of Colombian nationality increased by 5%, 7%, 8% and 35%, respectively (para la Paz, F. I., 2019:8)
- With regard this, General Director, *migración Colombia*, once again emphasize that Colombian crime does not occur from Venezuelan refugees, but unfortunately has long come from inside Colombia. It is not related to the rise of Colombian crime rate of Venezuelan refugees.

V. Conclusion

- First of al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st and sending country was weak in influence on the acceptance Venezuelan refugees in Colombia.
- In regard this,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acceptance of Venezuelan refugees in Colombia were as follows.
- Firs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funding and the provision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have influenced on the acceptance of Colombia.
- Second, There are strong social security systems such as PEP and PEPFF, which can easily achieve the regularization process of Venezuelan refugees. Along with this, by degree, Colombia is attempting to guarantee universal rights.
- Third, the Venezuelan refugee agenda showed that desecuritization was observed in Colombia, allowing Colombia to continue to host Venezuelan refugees.

Reference

- Agblor, S. K. M. (2011). Humanitarian assistance to refugees in rural Ghana: Implications for refugee-host relations. *Norsk Geografisk Tidsskrift- Norwegian Journal of Geography*, 65(2), 75-82.
- "Bidinger, S., Lang, A., Hites, D., Kuzmova, Y., Noureddine, E., Akram, S., ... & Kistner, T. (2014). Responsibility Sharing. Boston: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 GBAO. (2019). The experience of Venezuelan Refugees in Colombia and Peru and How the Business community can Help. Liga Alba Malo-Becerra, Andrea Otero-Cortés, Jorge Enrique Ramos-Forero, Ana Maria Tribin-Urribi. (2020). Fiscal Impact of the Venezuelan Migration. Colombia: Banco de la República-Centro de Estudios Económicos Regionales.
- "Loescher, G., Betts, A., & Milner, J. (2008).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The politics and practice of refugee protection into the 21st century."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8a.
- MIGRATION TRENDS IN THE AMERICAS: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Switzerl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8b.
- R4V - Plataforma de Coordinación para Refugiados y Migrantes de Venezuela. R4VP 2020: Plan de Respuesta para Refugiados y Migrantes de Venezuela. 23 Marzo 2020, disponible en esta dirección: <https://www.refworld.org/es/docid/5e7c2c3d.html> [Accesado el 25 Noviembre 2020].
- "Whitaker, B. E. (2008). Funding the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Implications for protection. *Global Governance: A Review of Multilateralis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4(2), 241-258."
- 국내문헌
송영호 (2015) 난민위기: 인도적 관심과 정치적 무관심 . JPI Research Series 34, 324-331
- Newspapers
Devex. (2020). Colombia to expand temporary legalization measures for Venezuelans. Retrieved from <https://www.devex.com/news/colombia-to-expand-temporary-legalization-measures-for-venezuelans-96373>
- El Comercio. (2019). Perú exigirá visado y pasaporte a ciudadanos de Venezuela a partir del 15 de junio del 2019. Retrieved from <https://www.elcomercio.com/actualidad/peru-visa-pasaporte-venezolanos-migracion.html>
- El Tiempo. (2020). 'Cerrar fronteras no es una opción contemplada': Migración Colombia director de migración colombiana habla sobre el coronavirus-468844
- El nacional. (2017). Estos son los requisitos para solicitar la visa panameña. Retrieved from <https://www.elnacional.com/sociedad/estos-son-los-requisitos-para-solicitar-visa-panameña-200117/>
- Reuters. (2017). Chile's presidential hopefuls bet on anti-immigrant sentiment. Retrieved from <https://fr.reuters.com/article/us-chile-immigration-idUSKBN1591CF>
- Quinus. (20119). Colombia Borders Remain Open for Venezuelans in Latin America. Retrieved from <https://qinus.com/colombia-borders-remain-open-for-venezuelans-in-latin-america/>
- Website
Plataforma de Coordinación para Refugiados y Migrantes de Venezuela. 2019년 11월 1일 접속. <https://R4v.info>